

제2편

계획 수립

제1장 관광개발 기본구상

제2장 기존 관광자원개발 사업 평가

제3장 전략 추진 과제

제4장 관광(단)지 개발계획

제5장 전략 사업 계획

제6장 전략환경영향 평가 결과



제1장 관광개발 기본구상

제1절 비전·목표 및 전략체계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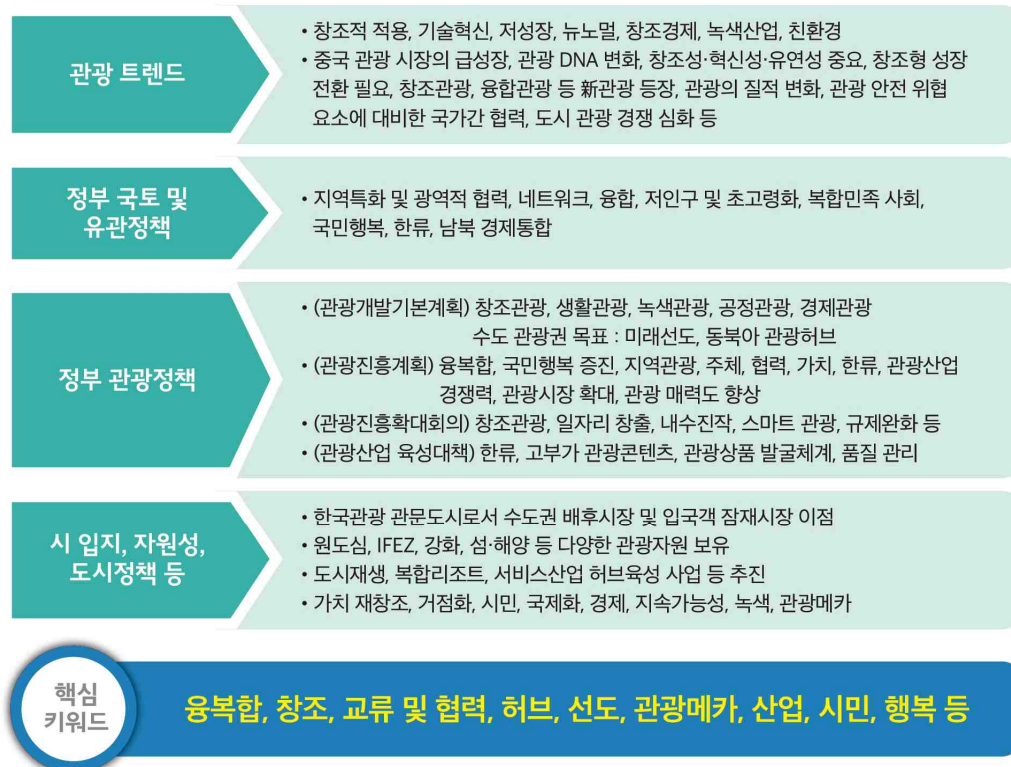
제2절 소권 설정과 개발방향

제1절 비전·목표 및 전략체계 설정

1. 도출체계

■ 정책환경변화에의 선도적 대응과 인천권 특수여건을 감안한 비전, 전략 키워드 도출

- 관광 트렌드 : 관광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환경 및 관광 트렌드를 검토하여 <창조적 융합, 기술 혁신, 저성장, 뉴 노멀, 창조경제, 친환경>과 <중국 관광 시장의 급성장, 관광 DNA 변화, 창조성·혁신성·유연성 중요, 창조관광, 융합관광 등 新관광 등장, 관광의 질적 변화> 등을 키워드로 도출
- 정부 국토 및 유관 정책 : 인천권 관광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국토 및 유관 정책을 검토하여 <지역특화 및 광역적 협력, 네트워크, 융합, 저인구 및 초고령화, 복합민족사회, 국민행복, 한류, 남북 경제협력> 등을 키워드로 도출
- 정부 관광정책 : 인천권 관광정책에 영향 미치는 정부 관광정책을 검토하여 <미래선도, 동북아 관광허브, 창조관광, 융·복합, 협력, 지역관광, 관광산업 경쟁력, 고부가 관광콘텐츠> 등을 키워드로 도출
- 인천시의 입지, 자원성, 도시정책 등 : 인천권의 입지, 관광자원 및 지역 고유자산 등의 자원성, 인천권 도시 및 관광정책을 검토하여 <가치 재창조, 거점화, 관광메카, 역사문화, 섬·해양, 재생> 등을 키워드로 도출



2. 비전·목표 및 전략체계 설정

1) 비전 및 목표 설정

■ 정책환경 변화 및 인천권 특수성의 종합적 검토를 통해 핵심 키워드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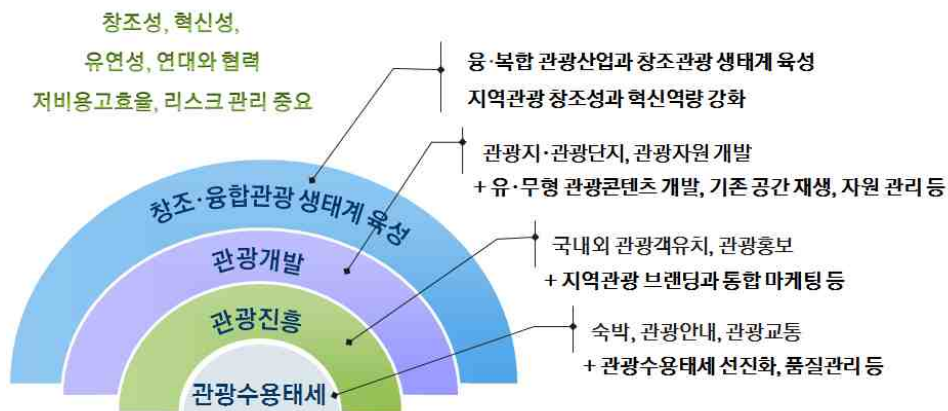
- 도출된 계획과제, 관광트렌드, 정부의 국토 및 관광 정책, 인천권 입지, 자원성, 도시정책 등의 특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융·복합, 창조, 교류·협력, 거점화, 관광메카, 산업고도화, 시민, 행복 등이 인천권의 관광비전의 핵심 키워드로 도출함.
- 검토된 핵심 키워드의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해 인천시 공무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융·복합, 창조, 교류·협력 등을 최종 핵심 키워드로 도출하고 인천권 관광비전 및 목표 설정에 활용

* 제6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의 선행계획 차원에서 수립한 인천 관광마스터플랜 수립 시 조사

대상	• 인천시(관광진흥과), 구 인천도시공사(관광사업본부), 구 인천의료관광재단 총 84명
기간	• 2014년 11월 9일 ~ 24일
조사결과	• 인천관광 비전·목표 및 전략도출을 위한 핵심키워드 - 교류·협력 : 31명(14.3%) - 관광메카 : 29명(13.4%) - 융·복합 : 28명(12.9%) - 창조 : 25명(11.5%)

■ 인천권 관광 패러다임 전환 : 관광정책 영역의 확장과 재구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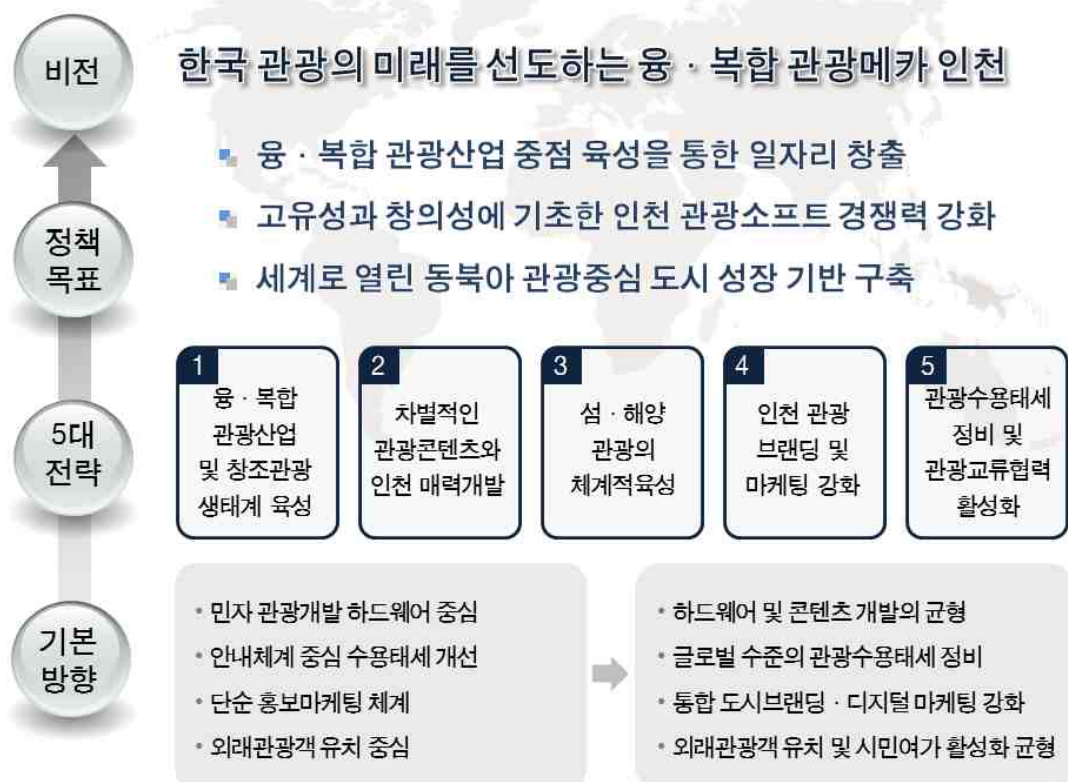
- 민간투자 의존형 하드웨어 조성 중심에서 인천 관광의 창조성 및 혁신역량 강화, 생태계 육성, 소프트 파워, 재정의 역할 강조 등 균형잡힌 관광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함.
-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한 관광시장·산업 육성」, 「고유 관광콘텐츠를 통한 인천가치 창조」, 「관광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활성화」, 「시민이 행복한 관광여가 활성화」 등을 인천권 관광정책 설계의 기본 관점으로 함.



【그림 II-1】 인천권 관광 패러다임 전환

인천권 관광 비전 및 목표 설정

- 인천권 관광 비전은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관광 창조성 및 혁신역량 강화를 통해 인천관광 경쟁력 강화 및 국가관광 미래 견인을 지향하는 ‘한국 관광의 미래를 선도하는 융·복합 관광메카 인천’으로 설정함.
- 설정된 인천권 관광 비전을 토대로 제6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집행을 통해 지향하는 관광정책 목표는 ‘융·복합 관광산업 중점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고유성과 창의성에 기초한 인천 관광소프트 경쟁력 강화’, ‘세계로 열린 동북아 관광중심 도시 성장 기반 구축’으로 설정함.
- 인천권 관광 비전 및 목표는 2015년 수립한 인천 관광마스터플랜 상의 인천 관광 비전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상 수도권관광권의 목표〈미래를 선도하는 동북아 관광허브〉, 제5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상의 관광 비전 및 목표〈세계인이 교류하는 창조적 해양관광도시 : 창조관광도시, 해양·녹색관광도시, 관광교류거점도시〉와 정합적인 관계에서 설정



【그림 11-2】 인천권 관광 비전 및 5대 전략

2) 비전·목표 실현을 위한 전략체계 설정

(1) 제6차 인천권 전략체계 설정 : 2021 5대 전략체계

- ‘한국 관광의 미래를 선도하는 융·복합 관광메카 인천’ 비전과 하위 목표 실현을 위해 ‘전략1. 융·복합 관광산업 및 창조관광 생태계 육성’, ‘전략2. 차별적인 관광콘텐츠와 인천매력 개발’, ‘전략3. 섬·해양관광의 체계적 육성’, ‘전략4. 인천 관광브랜딩 및 마케팅 강화’, ‘전략5. 관광수용태세 정비 및 관광교류 협력 활성화’ 등 5대 전략을 설정함.
- 전략체계는 계획비전을 위한 수단의 조합으로 전략체계는 2021년 제6차 권역계획 목표년도를 감안한 중장기 인천권 관광정책의 전체적인 구조를 의미
- 전략별 추진 과제는 인천권 관광개발 및 진흥을 위한 전체적인 정책구조와 중장기 관광정책 과제를 의미
- 전략별 추진 과제 중 제6차 계획기간 내 실천사업은 인천권의 차별화된 비전, 고유성, 관광개발여건 및 내부역량, 추진주체 등을 감안하여 전략사업계획으로 선정



【그림 11-3】 5대 전략별 추진 과제

(2)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선행 인천권 계획과의 연계

- 제6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의 5대 전략체계는 상위계획인 제3차 관광개발 기본계획에서 설정된 수도권 관광권의 4대 추진 전략 및 제5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상 6대 전략과의 연계성 및 정합성을 고려하여 설정함.



[그림 11-4] 기본 계획과 선행 권역계획과의 연계

3. 주요 계획 지표 설정

- 제6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의 주요 계획지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함.
- 국내·외 관광객 총량은 2021년 17,340천일로 2015년 대비 38.4%증가
 - 관광(단)지 등 전통적인 관광개발수단의 조성 면적 확대와 복합리조트·MICE 인프라 등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 기반을 집중적으로 조성

<표 11-1> 계획의 주요 성과 목표 설정 예시

지표명		단위	2015년	2021년
국내외 관광객	국내관광객	천일	11,000	15,142
	외래관광객	천일	1,530	2,198
관광 공급	관광지	개소	2	2
		m ²	692,161	692,161
	관광단지	개소	—	1
		m ²	—	645,225
	관광특구	개소	1	2
	복합리조트	개	—	3
		m ²	—	1,476,881
	컨벤시아	m ²	57,167	123,830

주 : 관광(단)지 개소수는 조성 단계 기준, 관광지 및 관광단지 면적은 조성계획 승인면적 기준, 복합리조트는 부지면적 기준, 컨벤시아는 연면적 기준

제2절 소권 설정과 개발방향

1. 소권 설정

1) 제5차 인천권 계획과의 일관성 유지

- 제6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상 관광소권은 제5차 계획의 4개 소권 설정을 유지하고, 관광환경 및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소권의 명칭 및 관광개발 방향 설정
- 제5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에서는 권역계획 수립 지침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접근성, 관광자원 유사성 및 차별성, 관광자원 간 연계성, 유관 계획과 행정체계 연계성을 기준으로 소권 설정을 검토하고 대안 평가 진행

<표 II-2> 제5차 인천권 계획 상 소권 설정 기준 및 고려사항

기준	주요 내용
접근성	• 해양(선박에 의한 접근), 김포시 등에 의해 공간적으로 단절
관광자원 유사성 및 차별성	• 관광자원간 유사성을 보유하고 문화적 특성이 타 지역과 차별적인 소권
관광자원간 연계성	• 자원간 이동의 용이성 및 연계가 가능한 입지적 특성에 의한 시너지 효과 창출 • 고려요소 : 개항기 근대역사문화축, 경인아라뱃길, 한남정맥 등 녹지축을 활용한 선적 이용과 철도, 고속도로, 간선도로, 시티투어 등에 의한 연계 이용 용이
유관 계획과 행정체계 연계성	• 제4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상 6대 관광소권과의 연계성 고려 • 인천시 도시 정책 및 사업 집행력을 감안한 행정체계 고려

2) 제5차 인천권 계획 상의 대안 설정 및 평가 내용

■ 대안1 : 물리적, 공간적 특성 고려

- 강화 소권, 옹진 소권, 영종 소권은 인천권 내륙과 이격되어 있고 소권별로 다른 간선도로 또는 교통수단을 통해 접근하므로 별도 소권으로 설정하고, 인천 내륙 도심지역은 지역 내에서 다양한 간선도로에 의한 연계 가능하므로 동일 소권으로 분리

<표 II-3> 관광소권 설정 대안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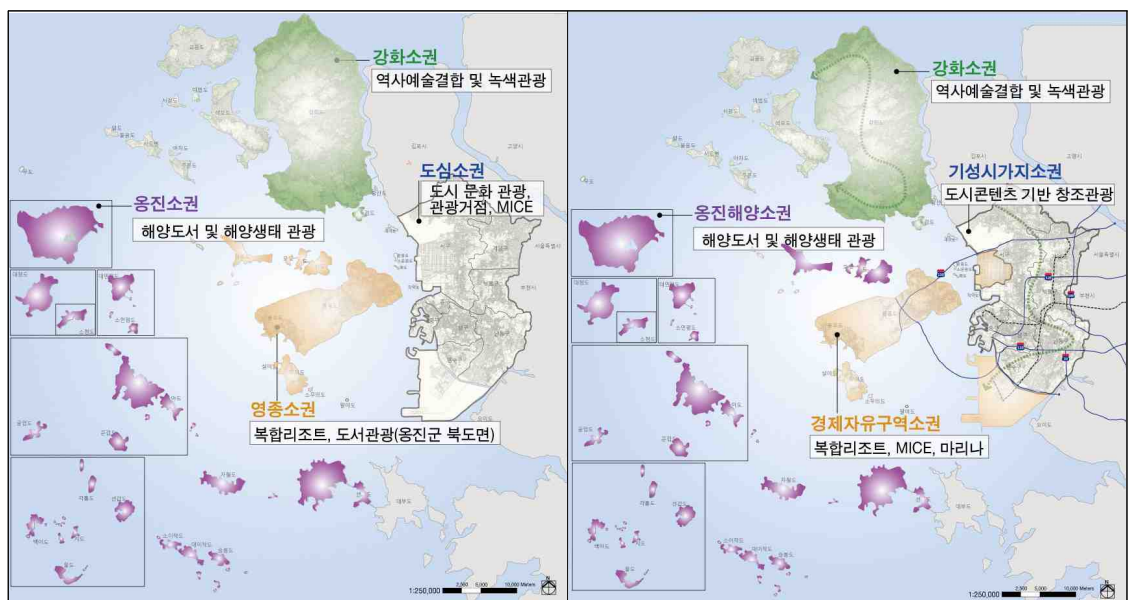
소권역	특화 방향	소권역	특화 방향
강화 소권	• 역사와 예술간 결합 • 녹색관광 강화	도심 소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항 역사문화 및 항구 민속자원 도시콘텐츠 기반 창조관광 • 수변관광(경인아라뱃길) 기반 조성 • 국제비즈니스, MICE 산업 육성 • 문화예술 및 미디어 연계 관광
옹진 소권	• 해양 도서관광 기반 구축 • 해양 생태관광 기능 강화		
영종 소권	• 국제공항 배후 체류거점 • 복합리조트 조성 • 옹진군 북도면 도서관광		

■ 대안2 : 인천권 도시행정체제 감안

- 인천권 도시행정기능(도시행정=시행정+경제청행정, 강화웅진행정=강화행정, 웅진행정)에 기반하고 권역계획사업 집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기성시가지, 강화, 웅진해양 소권으로 설정

〈표 11-4〉 관광소권 설정 대안2

소권	주요 내용	소권	주요 내용
강화소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사와 예술 결합, 녹색관광 강화 본도, 강화 부속도서로 구성 	경제자유구역소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합리조트, MICE, 마리나 조성 송도, 청라, 영종으로 구성
웅진해양소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양 도시관광, 해양 생태관광 기반 서해 5도서, 덕적자일, 북도, 영흥으로 구성 	기성시가지소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콘텐츠 기반 창조관광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로 구성



【그림 11-5】 관광소권 설정 대안1(좌) 및 대안2(우)

■ 대안 평가결과 대안2가 설정안으로 적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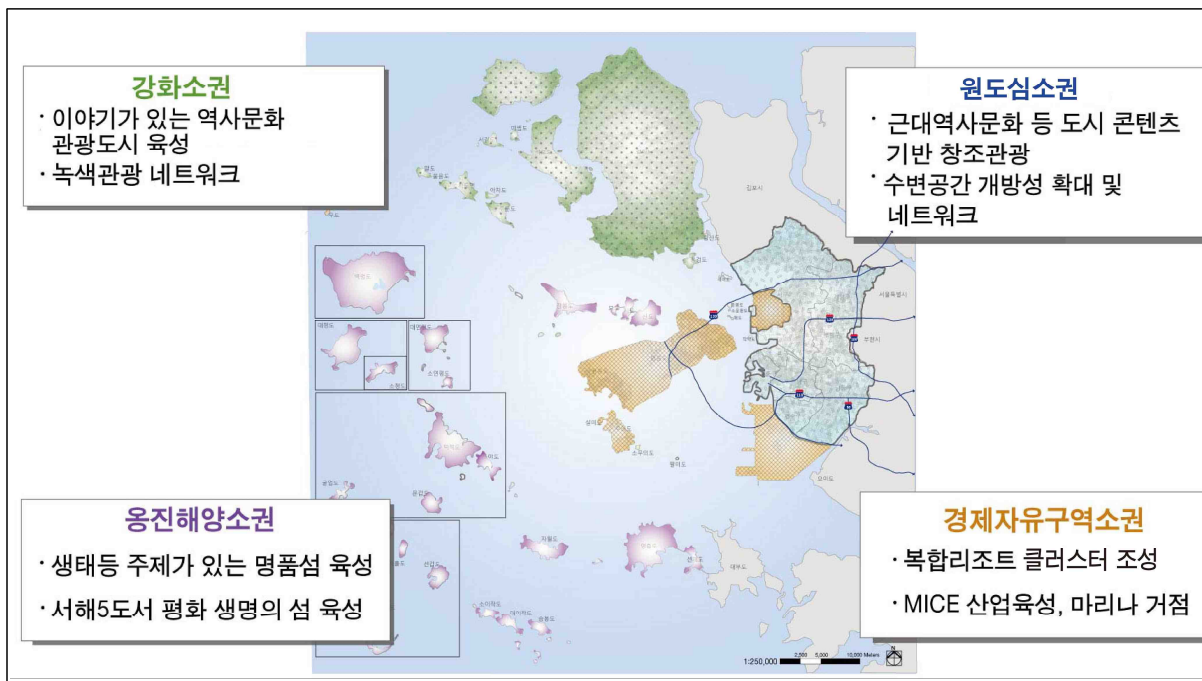
- 접근성, 관광자원 유사성 및 차별성, 관광자원간 연계성 차원에서 대안별 각각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
- 유관 계획과 행정체제 연계성 측면에서는 대안2가 대안1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

<표 11-5> 관광소권 설정 대안 평가 결과

구분	주요 내용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화소권과 웅진소권에 대한 접근성은 대안1, 2에서 동일 접근성 관점에서 인천시역 및 옹진군 북도면을 동일 소권으로 구분한 대안1이 적합
관광자원 유사성 및 차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화소권과 웅진소권에 대한 관광자원 유사성·차별성은 대안1, 2에서 동일 대안1은 기성 시가지와 신 시가지의 자원을 단일 소권내에 포함한 반면, 대안2는 MICE 시설, 전시홍보관 등을 보유한 신 시가지 자원과 개항 및 항구 도시 민속(생활문화) 자원을 보유한 기성 시가지 자원을 구분하고 있어 대안2가 대안1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광자원간 차별성 부각 가능
관광자원간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화소권과 웅진소권에 대한 관광자원간 연계성은 대안1, 2에서 동일 대안1은 해안 녹지축이 인천 내륙 서북에서 남동으로 연계되는 것이 특징인 반면, 대안2는 기성시가지권 내 관광자원간 유사성에 기반한 연계성이 높은 것이 특징
유관 계획과 행정체계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권의 도심 및 관광 유관 계획으로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기성 시가지 재생),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경제자유구역 도시개발사업), 강화·옹진 신발전지역계획 및 관광진흥계획 등 추진 중 권역계획이 종합계획임과 동시에 집행을 전제로 하는 실행계획임을 고려할 때 대안2가 대안1에 비해 유관계획과의 연계성 양호 대안2는 소권이 경제자유구역청과 8개 구, 2개 군 등 관광행정과 일치

3) 소권 설정

- 제6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상 관광소권은 제5차 계획 상 대안 평가 결과에 따른 4개 소권 설정을 유지하고,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소권의 명칭 및 관광개발 방향 설정
 - 제5차 계획 상 기성시가지 소권을 원도심소권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강화소권, 웅진해양소권, 경제자유구역소권 등 4개 소권 유지



[그림 11-6] 제6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상 관광소권

2. 소권별 개발방향

1) 원도심소권

■ 여건 및 동향

- 원도심소권은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등 도시행정구역으로 구성
- 경인고속국도(제1, 2, 3), 경인선, 수인선, 인천국제공항철도, 서해안고속국도, 경인선전철 등으로 수도권 시장과 연결되고, 내부적으로는 간선도로, 인천도시철도 등으로 연계
- 중·동구 근대역사문화자원, 월미공원, 송도유원지, 인천대공원, 소래포구 등의 관광매력이 기 조성된 소권으로 월미관광특구(중구) 지정
- 정서진 및 경인아라뱃길 사업 추진으로 서구·계양구 일대 수변 매력 및 연계여건 개선

■ 개발방향

- 원도심권의 고유 자원에 기반한 차별적 관광콘텐츠 개발 및 개항창조도시 재생 중점사업과 연계한 도시관광 육성
- 항만 재개발을 통한 해양관광 거점 조성 및 해양명소 육성,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조성과 연계한 크루즈 기항지 관광 육성
- 경인아라뱃길과 연계한 수변공간 개발 및 연안 수상네트워크 활성화, 소래포구 일원 관광 활성화 등 도심 수변관광 확충
- 개항장·동인천, 부평역, 주안역 일대 등 국내·외 관광객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관광수용태세의 체계적 정비

2) 강화소권

■ 여건 및 동향

- 강화소권은 강화 본도와 부속도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화읍과 선원면·불은면 등 12개 면으로 구성
- 국도 48호선과 지방도를 통해 인천, 서울, 경기 지방과 연계되며, 강화본도와 부속도서는 차도선으로 연결 또는 연륙·연도 사업 추진 중
- 마니산, 고려궁지, 전적지 등 한민족 역사문화자원, 고인돌 세계문화유산, 강화 남단 갯벌·조류 등 자연생태자원, 접경지역 자원 등이 특징적인 소권으로 마니산관광지 기 조성

■ 개발방향

- 강화소권은 강화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2018년)을 계기로 이야기가 있는 역사·문화 관광도시로 중점 육성
- 강화 역사문화관광 거점 조성 및 강화읍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창조관광 육성
- 강화 남단 녹색관광 네트워크 구축과 부속 도서 접근성 강화 및 섬 생태관광 육성

3) 용진해양소권

■ 여건 및 동향

- 용진해양소권은 행정구역으로는 북도면, 덕적면 등 7개 면으로 구성
- 연육된 영흥면을 제외한 6개 면은 인천 연안여객터미널, 대부 터미널, 삼목 선착장에서 여객선과 차도선을 통해 연결
 - 연안여객터미널 기준으로 덕적·자월권 90분, 연평 120분, 백령·대청 270분 정도 소요
- 장봉도 및 대이작도 주변 해양보호구역, 특정도서, 천연기념물(백령도 사곶사빈·콩돌해안·점박이 물범 등) 등의 자연생태자원과 도서문화, 종교, 역사 등의 특징적인 인문자원이 분포한 소권으로 서포리 관광지 기 조성

■ 개발방향

- 용진 섬 지역의 고유 자원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 확대와 섬 자원의 창의적 활용을 통한 지역활성화 추진
-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 등 서해 5도 지역은 서해5도서 종합발전사업,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사업과 연계한 평화안보, 생태 관광개발 사업 추진
-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접근성의 지속적 개선과 숙박, 식음 등 섬 관광수용태세 개선

4) 경제자유구역소권

■ 여건 및 동향

-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송도·청라·영종 등 3개 지구로 2003년 8월 국내 최초로 지정
- 인천국제공항이 입지해 있어 국제 접근성에 강점이 있는 소권이며, 공항철도, 인천발 KTX 및 GTX 급행철도(추진 중), 공항고속도로, 인천대교를 통해 인천 원도심소권 및 수도권 시장과 연결
- 송도 컨벤시아(2단계 사업 추진중), 아트센터, 트라이볼, 센트럴공원, 수변레저시설 등 관

광시설 자원이 조성되었으며, 영종 복합리조트, 용유·무의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등 민간 투자형 복합개발 사업 추진 중

■ 개발방향

- 파라다이스시티, 시저스 코리아 복합리조트,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등 영종도 복합리조트 클러스터 추진
- 송도컨벤시아 2단계 시설 확충, 스마트 마이스 인프라 구축, MICE 인프라 확충 등 MICE 산업 중점 육성
- 왕산 마리나, 송도 워터프론트 조성 등과 연계한 마리나 기반 해양 레저관광 육성



제2장 기존 관광자원개발 사업 평가

제1절 문화 및 생태·녹색 관광자원 개발 사업

제2절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사업

제3절 월미관광특구

제4절 유사 관광자원 개발사업 : 도서특성화 사업

제1절 문화 및 생태·녹색 관광자원 개발 사업

문화 및 생태·녹색 관광자원 개발 사업을 사업 기획성, 집행 효율성, 운영 가능성 등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향후 효과적인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추진 방향을 모색함.

1. 평가 개요

■ 평가 기준

- ‘제6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지침’은 문화 및 생태·녹색 관광자원 개발사업 평가를 위해 평가 기준 및 항목을 제시하고, 권역내 문화 및 생태·녹색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설정하도록 제시함.
- 2012~2016년간 추진한 문화 및 생태·녹색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지침 상 제시된 평가 항목 및 기준을 참조하되, 집행 완료사업인 특성을 감안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관광개발 기획평가센터의 집행사업 평가 기준과 혼용하여 평가함.

<표 II-6> 평가 기준

평가 기준		평가 항목
사업 기획성	목표 부합성	• 상위 계획과의 부합성과 일관성
	행정절차 및 사업계획	• 사전 행정절차 이행 점검 • 사업계획 적정성
	사업 특화성	• 콘셉트의 독창성과 매력성 • 미래 관광 활동 및 관광 행태·트렌드 반영여부
집행 효율성	사업 진척률	• 예산액 대비 진행률 • 사업기간 준수 여부
	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체계 구성의 효율성 및 역할 분담의 명확성 • 사업리스크 관리 역량
운영 가능성	관리·운영의 적절성	• 사업 추진에 따른 관리·운영 계획 준비도 • 관리 운영 방식, 주체, 운영 프로그램의 적정성
	지속발전 가능성	• 자생추진 능력여부 •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가능 정도 • 관광객 유치 효과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5.11.), 지역관광개발사업 기획평가

평가 대상 사업

- 2012~2016년간 추진한 문화 및 생태·녹색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조기파시 역사문화 탐방로 조성, 세어도 자연생태관광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음.

<표 II-7> 평가 대상 사업 총괄

사업명	구분	주요 내용
조기파시 역사문화 탐방로 조성	주체	웅진군
	위치	웅진군 연평면 연평리 일원
	기간/사업비	2013년 300백만원(국 33.3% 시비 33.3% 군비 33.3%) 2014년 200백만원(국 50%, 시 25%, 군 25%)
	사업내용	월페이팅, 타일벽화, 안내표지판, 탐방로(0.9km), 포토존 등
세어도 자연생태 관광활성화	주체	서구
	위치	서구 원창동 353번지 일원
	기간/사업비	2013~15년, 1,040백만원 (국비 50%, 시 25%, 구비 25%)
	사업내용	공공예술프로젝트(민가 및 폐가 활용 벽화그리기, 야외조형물 설치) 기존 시설(종합안내소, 공동작업장) 리모델링 및 탐방로(6.7km) 재정비 전통정자, 물품보관소 등 편의시설 설치 소세어도 데크 설치 및 이동로 정비, 전망대 설치, 둘레길 안전시설 정비

<표 II-8> 문화·생태녹색 관광자원 개발사업 국고보조(2013~2015)

(단위 : 백만원, %)

년도	시군구	세부사업명	국고보조 예산(안)	보조율
2013	웅진군	조기파시 역사문화 탐방로 조성	100	50
	서구	세어도 자연학교 사업	300	50
2014	웅진군	조기파시 역사문화자원 복원 및 개발	100	50
	서구	세어도 자연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155	50
2015	서구	세어도 자연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65	5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각년도), 관광부문 재정집행계획



세어도 공동작업장 리모델링 구상

세어도 종합안내소 홍보관 구상

세어도 공동작업장 리모델링

2. 문화 관광자원 개발 : 조기파시 역사문화 탐방로 조성

1) 사업 추진 현황

(1) 개요

- 위 치 : 연평면 일원
- 기 간 : 2013~2014년
- 사 업 비 : 500백만원(국비 200백만원, 시비 150백만원, 군비 150백만원)
- 사업내용 : 조기파시 관련 월페인팅 및 타일벽화, 포토존, 안내판 설치, 도막포장 등

(2) 세부 사업

■ 조기파시 탐방로 조성

- 조기파시 탐방로 0.5km(2013), 0.4km(2014) 조성, 게이트 1개소 설치, 도막 포장 1,256㎡(2013), 1,550㎡(2014) 실시
- 조기파시 탐방로 안내판 설치 : 연평도와 조기, 조기파시 유래, 노래 가사 등 관련 해설

<표 II-9> 사업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사 업 명	조기파시 탐방로 조성(2013)	조기파시 탐방로 조성(2014)
사업내용	탐방로 조성(L=0.5km), 안내판, 게이트 1개소, 도막포장(1,256㎡)	탐방로 조성(L=0.4km), 도막포장(1,550㎡), 보도포장 담장도색 등
공사기간	2013.10.7.~2013.12.3.	2014.5.29.~2014.8.11.





■ 디자인 벽화 및 게이트 경관 조명

- 조기파시 옛모습 등의 타일벽화 49개, 트리아트 10개, 디자인벽화 47㎡, 게이트 경관 조명 명 설치

〈표 11-10〉 사업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사업명	디자인 벽화	경관조명	디자인 벽화
사업내용	타일 벽화 49개, 트리아트 10개	게이트 경관조명 1식	디자인 벽화 47㎡
공사기간	2013.10.17.~2013.12.30.	2014.4.24.~2014.6.12.	2014.4.28.~2014.7.12.



2) 사업 평가

- 조기파시 역사문화탐방로 조성 사업의 사업 기획성, 집행 효율성, 운영 가능성을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목표 부합성

- 상위계획 및 개발목표와의 일관성 유지
 - 조기, 항구, 어촌 등의 콘텐츠에 기반한 역사문화 특화자원을 활용한 관광개발사업으로서 상위계획인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과 제5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의 전략 2. 해양·도서 및 녹색관광 육성과 핵심전략사업인 ‘서해5도 특화관광개발 및 국제평화거점 육성’ 사업의 조기파시 역사문화자원 복원 및 개발 내용과 부합

■ 행정절차 및 사업계획

-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및 사업계획 적정성
 - 군 차원에서 조기파시 역사문화탐방로 조성계획 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제5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의 세부 사업으로 조기 로드길 조성, 옛 전통 조기파시시장 재현, 조기 전시물 설치 등이 계획되어 탐방로 조성계획은 사전 계획과 정합성 보유

■ 사업 특화성

- 콘셉트의 독창성과 매력성
 - 인천권 고유의 독특한 섬 어촌 생활사 콘텐츠로서 독창성 및 고유성을 보유하며, 흑산도파시, 위도파시와 더불어 우리나라 3대 파시로 꼽혔고, 1960년대 연평항의 번영했던 전통 조기파시에 관한 신기성을 체험할 수 있는 사업 주제로 평가



과거 연평도 조기파시

- 미래 관광 활동 및 관광행태, 트렌드 반영여부
 - 탐방, 관람 위주의 사업으로 참여적 경험 또는 관광활동의 창조성을 중시하는 관광행태 트렌드에 대응하고 ‘섬 역사문화자원 복원’이라는 방향성에 부합하기에 다소 미흡

■ 사업 진척률

- 2013년, 2014년 본 예산 기준 예산 집행율은 2013년 100%, 2014년 93% 수준이며, 사업기간은 조성계획 상 기간을 준수함.

■ 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체계 구성의 효율성 및 역할 분담의 명확성
 - 사업주무부서는 웅진군 관광문화과가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사업 추진체계는 미구성
- 사업리스크 관리 역량
 - 사업주무부서인 웅진군 관광문화과는 사업 추진 경험 보유

■ 관리·운영의 적절성

- 탐방로 조성 이후 연평면 차원의 관리·운영계획이 미수립되어 관리·운영 주체 및 방식,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방안을 포함한 관리·운영의 적절성이 낮음.

■ 지속발전 가능성

- 자생추진 능력 여부
 - 조기파시 역사문화자원 및 탐방로를 활용한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을 담당할 주민조직이 부재하여 자생적, 내생적 추진역량 형성 또는 강화를 위한 방안 필요
- 다수의 지원 법령 및 법정 계획 사업 추진으로 연평도 자체 관광매력 및 수용태세 개선이 예상되며, 평화안보 관광프로그램 개발시 사업 효과 양호할 것으로 전망됨.
 -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계획의 평화기원 등대언덕 조성 사업중, 안보수련원 리모델링 공사중, 희망등대 추진 예정
 - 연평도 평화안보 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서해5도 연계 시 섬 관광객 또는 안보 관련 관광객 유치 효과와 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3) 정비·보완 방안

■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효과성 제고

- 신규 시설 도입은 지양하고, 조기파시 역사문화탐방로의 저이용상태를 개선하여 활용하도록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계획의 평화안보 관련 사업들과 연계함.
 - 평화공원, 안보교육장, 대피소, 평화안보 둘레길, 퇴역함정 전시, 안보수련원 등과 연계한 평화안보 관광프로그램 개발 필요

3. 생태·녹색 관광자원 개발 : 세어도 자연생태 관광활성화

1) 사업 추진 현황

(1) 개요

- 위 치 : 서구 세어도 일원
- 기 간 : 2013~2015년
- 사 업 비 : 1,040백만원(국비 520백만원, 시비 260백만원, 구비 260백만원)
- 사업내용 : 기존시설 리모델링, 둘레길 조성, 편의시설 설치, 공공예술프로젝트(벽화 및 조형물 설치)

(2) 세부 사업

■ 기존시설 리모델링 및 탐방로 조성·정비 사업

- 세어도 공동작업장 및 종합안내소 리모델링(2013)
 - 세어도 마을공동작업장(세어도어촌계획관), 종합안내소(어촌체험종합안내소) 외관정비, 2개 건물 연결브릿지 설치, 내부 시설 정비 등
- 세어도 둘레길(탐방로) 조성 및 정비(2013)
 - 소세어도 데크 설치 및 이동로 정비, 둘레길 2.4km 재정비(목재 계단, 손잡이 등 추가 설치)
- 세어도 자연생태 관광객 및 주민편의시설 설치(2014)
 - 테마형 전망대, 전통정자, 둘레길 야자매트 포설, 안전시설, 야외 운동시설 등 설치



■ 공공예술 프로젝트 추진

○ 공공예술프로젝트 사업으로 마을 벽화 그리기, 야외 조형물 설치 추진



2) 사업 평가

- 세어도 자연생태 관광활성화 사업의 사업 기획성, 집행 효율성, 운영 가능성을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목표 부합성

○ 상위계획 및 개발목표와의 일관성 유지

- 상위 계획인 제5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에서 전략2. 해양·도서 및 녹색관광 육성의 세부 과제인 이야기가 있는 수변공간 조성 및 재생 추진을 위해 세어도 관광명소화 추진 사업으로 계획된 바 있어 상위 계획 및 개발목표에 부합하고, 일관성 유지

■ 행정절차 및 사업계획

○ 행정절차 이행여부 및 사업계획 적정성

- 사전행정절차로서 2012년 7월 지속가능한 해양·섬 관광을 위한 세어도 기본계획 수립, 2013년 5월 실시 설계(종합안내소, 공동작업장 리모델링, 탐방로 정비), 2014년 6월 관광객 및 주민편의시설 설계, 2015년 공공예술 프로젝트 실시 설계 추진
- 세부사업으로 종합안내소 및 공동작업장 리모델링, 전통정자 및 물품보관소 설치, 둘레길 조성 및 재정비, 공공예술프로젝트(민가·폐가 벽화, 야외 조형물) 추진

- 관광체험 기반시설 확보를 감안할 때 사업계획은 적정하며, 관광매력 또는 콘텐츠 확충에 관한 추가적 검토 필요

■ 사업 특화성

○ 콘셉트의 독창성과 매력성

- 농어, 송어, 참새우 등의 수산자원, 섬 문화자원, 섬 숲 생태계 및 갯벌 등 해양생태계, 섬 주변 탐조자원, 육지와 차별적인 섬문화 자원을 보유하여 섬의 고유성 체험 가능

○ 미래 관광 활동 및 관광행태, 트렌드 반영여부

- 최근 관광활동을 감안한 콘셉트의 매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섬 보유자원을 복합적으로 활용한 섬 자연생태체험 프로그램 강화방안의 모색 필요

■ 사업 진척률

- 예산액 대비 진행률은 예산액 1,040백만원 대비 910백만원을 집행하여 87.5%이며, 세부 사업 사업기간은 계획기간을 준수

■ 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체계 구성의 효율성 및 역할 분담의 명확성

- 사업주무부서인 서구 문화관광체육과가 세어도 섬 관광정책 간담회 추진(2012), 자연생태관광 활성화사업(2013~2015)을 추진했고, 서구 경제에너지과는 어촌체험마을사업을 담당

○ 사업리스크 관리 역량

- 사업주무부서인 서구 문화관광체육과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세어도 자연생태관광 활성화사업 추진

■ 관리·운영의 적절성

- 세어도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은 2012년 인천녹색연합 청소년 생태체험 프로그램 ‘게논’, 2013년 서부교육지원청 연계 세어도 체험학습 프로그램, 2014년 서부교육지원청 연계 내고장 교내체험학습을 운영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교류형 프로그램이 중단됨.

- 현재 종합안내소의 홍보관 내부 전시물 미비, 갯벌체험 운영 미비, 체험프로그램 미운영 등 관광편의시설 및 프로그램의 관리·운영과 관광 콘텐츠 개발은 원활하지 않은 실정임.



종합안내소 홍보관 내부

갯벌체험장

체험프로그램 안내표지

지속발전 가능성

○ 자생추진 능력여부

- 2008년 세어도 어촌체험마을 운영관리조례 제정, 세어도 어촌체험마을 운영위원회 조직, 2012년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2008~2015년 어촌체험마을 자체 운영 등의 경험 축적
- 관광프로그램 운영 주체로서 마을회 대표인 통장이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을 겸직하면서 비즈니스 경험을 축적 중이며, 향후 섬내 관광비즈니스 및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 지원 필요

사업의 효과성

- 세어도 방문객수는 2013년 6,461명, 2014년 4,090명, 2015년 6,492명으로 연간 6,000명 규모임.

〈표 II-11〉 세어도 방문객 규모

구분	방문객수(명)	체험시설 이용객수(명)	관광소득(천원)	
			직접소득	간접소득
2013년	6,461	6,307	6,300	—
2014년	4,090	693	14,170	6,290
2015년	6,492	832	10,344	300

- 세어도 자연생태 관광활성화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세어도 관련 정책사업의 체계적인 연계시 세어도 지역주민 대체 소득원 발굴 및 관광소비지출 확대, 지역사회 관광여가 복지 증대 등의 효과 발생할 것으로 전망
 - 특화 관광 프로그램에 기반한 인천 및 서구 관내 단체·기업과 연계한 교류형 프로그램 지원 시 비즈니스 확대, 인천 섬의 장소성 부각 등 사회문화적 효과가 양호할 것으로 예상

3) 정비·보완 계획

■ 체계적 관리·운영 프로그램 운영 및 역량 강화 필요

- 세어도 자연생태관광활성화 사업은 사업기획성(목표 부합성, 행정절차 및 사업계획, 사업특화성)과 집행효율성(사업 진척률, 추진체계의 적절성)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나, 관리·운영적 측면에서는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함.

■ 세어도 자연학교 체험프로그램 운영 검토

- 해양생태계, 숲생태계, 섬문화를 소재로 교육·체험을 특화한 교육적 체험프로그램을 상설화하여 세어도 자연학교 체험프로그램 운영 검토
- 해양생태계, 숲생태계, 섬문화 관련 콘텐츠의 원활한 전달을 위해 세어도 주민 및 외부 인력이 참여하는 섬 해설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표 11-12> 세어도 자연학교 체험프로그램 예시

구분		주요 내용
해양 생태계	갯벌생태 학습	갯벌 의미와 가치, 종류, 인간과 갯벌의 관계, 갯벌 생물, 밀물과 썰물 학습
	갯벌생태 관찰	갯벌 경사 및 토질, 갯벌 식생, 갯벌 생물 이동 및 먹이 등 관찰
	갯벌조류 탐조	저어새, 두루미 등 탐조활동
숲 생태계	숲 식물	수목 분류(소나무, 굴피나무, 밤나무 등), 명패 달기 등 수목 관찰(잎, 열매, 수고, 건강도, 생장추 등)
	숲 곤충 및 동물	곤충 관찰, 세어도 서식 야생동물(동식물 분류, 먹이, 이동흔적),
섬문화	섬 주민 생활사	지명 유래(윗말, 아랫말, 당재 마루턱, 막개, 간나지 때부리 등), 개주알나물
	섬 어업 생활사	바지락잡기, 농어 건조, 특산물(동백하, 소라, 민들레, 쉼, 개주알나물 등)
	섬 정신 생활사	동제(도당제), 당재(당집), 마을수호목(김첨지나무) 등

■ 세어도 소득사업의 체계적 발굴 및 개발 방안 검토 추진

- 세어도 어촌체험활동 확대 및 주민소득사업 확대를 위하여 로컬푸드를 활용하거나, 리모델링된 공동작업장 등을 활용한 관광커뮤니티 비즈니스 개발 필요
 - 세어도 로컬푸드를 활용한 관광커뮤니티 비즈니스 추진을 위하여 단기적으로 섬의 특산물 및 고유 식재료와 연계한 메뉴 및 음식 콘텐츠를 개발, 장기적으로 자체 시설을 관광매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술과 융합하는 섬 식음공간으로 설계하거나, 예술적 디자인이 결합된 식기 및 용기 등을 활용하는 등 예술과 결합한 형태로 기획 검토
 - 리모델링된 공동작업장(신마을회관)의 숙박시설을 관광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제2절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사업

광역권 관광개발 사업을 사업 준비도, 내용 적합성, 집행 가능성 및 효과 기대성 등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향후 효과적인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추진 방향을 모색함.

1. 평가 개요

1) 평가 지표

- 제6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지침 상 기존 관광자원개발사업의 평가는 권역계획의 계획기간 내 추진성과를 중점으로 평가하며, 권역 관광개발방향과의 적합성, 효율성, 효과성, 유용성 및 추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함.
- 평가항목 및 기준은 개별 광역권 사업이라는 특성과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 중간평가를 시행함에 따라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 중간평가 평가 지침을 반영하여 평가함.
- 개별 사업별 추진 시기 및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 단계 평가와 집행 단계 평가로 구분하여 사업별 특성에 맞도록 평가 지표를 설정함.

<표 II-13> 계획 단계 평가 항목

평가 기준		평가 항목
사업 준비도	사전 점검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행정절차 이행 여부 (정량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행 계획 수립 여부, 인허가 완료 여부, 부지 매입 정도 • 지자체 사업 추진 의지
	입지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 적합성 • 시설물 입지 적정성
내용 적합성	사업 목적 부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기본 계획 부합 여부 • 지역 관광발전 및 활성화 기여 정도 • 개발 콘셉트 부합성
	사업 규모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 규모의 적정성 • 사업 및 투자 규모의 적정성
	사업 특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적 매력성 및 차별성 • 사업의 독창성
집행 가능성 및 효과 기대성	운영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 사업 계획 구체화 여부 • 관리·운영계획 수립 여부 • 지역 사회의 참여 고려 여부
	사업 실현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 기간 내 완료 가능성 • 미래 관광 트렌드 부합성
	사업의 효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관광 발전 및 경제 활성화 기여 정도 • 지역주민 소득 증대 및 고용 창출 효과 기여 정도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6),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 중간평가 평가 지침

<표 II-14> 집행 단계 평가 항목

평가 기준		평가 항목
사업 기획성	사전 점검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계획과의 정합성 • 지자체 사업 추진 의지
	사업 특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적 매력성과 차별성 • 지역 여건에 부합되는 독창성 • 미래 관광 행태 반영 여부
집행 효율성	사업 진척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행 실적 평가(정량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비 집행 실적, 지방비 집행 실적, 부지 확보 정도, 인허가 완료 여부 • 계획 기간 내 사업 완료 가능성
	추진 체계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추진 전담 조직 및 인력 구성 • 사업 추진 협의체 구축 운영 여부
	추진 과정의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 과정의 효율적 관리, 모니터링 • 모니터링을 통한 계획 조정 및 피드백
운영 가능성	관리 운영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라운영계획의 구체성 • 관라운영 방식, 운영 주체 사전 계획 • 단지 및 시설 운영 프로그램 적정성
	지속 발전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공 이후 자생적 운영 가능성 • 지역주민 소득 증대 및 고용 효과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6),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 중간평가 평가 지침

2) 평가 대상

-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 내 반영된 인천권의 사업은 총 7개 사업으로 이중 연평도 평화기원 등대언덕 조성사업은 2014년부터 추진 중이며, 이외 사업은 계획 단계 사업임.
- 사탄해변 바다 속 마을 조성사업은 사업 예정 부지(폐교) 내 군부대 시설 설치에 따라 부지 확보의 어려움, 옹진군에서 민박 현대화 지원사업을 통해 부족한 숙박시설의 지원 등을 추진함에 따라 군 차원에서 사업 추진 중단을 결정함.
 - 사탄해변 바다 속 마을 조성사업은 대청면 대청리 사탄분교(부지 면적, 15,000㎡) 내 109억원의 규모로 테마숙박단지, 야영장, 바다 식당, 특산물 판매장, 다목적 광장, 방문자 센터, 자전거 대여소 등을 만드는 사업
- 이와 관련하여 평가 대상 사업은 사탄해변 바다 속 마을 조성사업을 제외한 총 6개 사업이며, 집행 단계 평가와 계획 단계 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함.
- 사업별 평가 기준은 문체부의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을 기준으로 하되, 군에서 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사업의 경우 군에서 제시된 사업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함.

<표 II-15> 광역권 관광개발사업 평가 대상 총괄

지역	사업명	구분	주요 내용
웅진군	물범 생태 관찰센터	주체	• 웅진군
		위치	• 웅진군 백령면 진촌리 일원
		기간/사업비	• 2012~2015년, 14,147백만원
		사업내용	• 시설 : 전망 학습관, 점박이 물범의 집, 관찰데크, 소형보트 선착장, 주차장 등 • 프로그램 : 물범과 함께 하는 바다속여행, 물범이 들려주는 서해5도의 평화 노래, 보호대상 해양동물 알아보기
	몽금포 서해문화 공연장	주체	• 웅진군
		위치	• 웅진군 백령면 진촌리 일원
		기간/사업비	• 2016~2020년, 6,592백만원
		사업내용	• 몽금포 공연장, 심청각 리모델링, 전망데크 등
	동백나무 테마단지	주체	• 웅진군
		위치	• 웅진군 대청면 대청리 일원
		기간/사업비	• 2016~2020년, 4,775백만원
		사업내용	• 동백나무 정원, 동백미인 다도원, 산책로 및 포토존 등
	연평도 평화기원 등대언덕*	주체	• 웅진군
		위치	• 웅진군 연평면 연평리 일원
		기간/사업비	• 2014~18년(5년간), 7,300백만원
		사업내용	• 평화안보 둘레길(2014~15), 안보수련원(2016~17 예정), 연평도 평화공원 퇴역함정 전시(2015), 희망등대(2018 예정)
강화군	한겨레 얼 체험공원	주체	• 강화군
		위치	• 강화군 화도면 상방리 산 23번지 일원
		기간/사업비	• 2012~2015년, 10,482백만원
		사업내용	• 한겨레 얼 전시관, 기 체험관, 개천극장, 야외공연장 등
	호국역사 스토리 탐방로	주체	• 강화군
		위치	• 강화군 양사면 철산리~길상면 초지리 일대(L:27.66km) - 평화전망대~당산리 5.49km 신규 조성 - 당산리~초지대포 22.17km 기존시설 정비
		기간/사업비	• 2012~2020년, 24,250백만원
		사업내용	• 보행로, 자전거도로, 관리센터, 쉼터 등

주 : * 연평도 평화기원 등대언덕 사업은 집행사업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1),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방안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

<표 II-16>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사업 평가결과 종합 및 조치 사항

지역	사업명	구분	주요 내용
웅진군	물범 생태 관찰센터	평가결과 종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계획 상 사업대상지는 사유지(현재 인삼밭 활용)로 토지 소유자가 매도 의사가 없어 입지 변경 필요 백령도의 관광 구조 상 대규모 신규 관광 수요 창출 한계에 따라 백령도 관광경험의 보완적 관점에서 사업 조정 필요
		조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적 관점에서 입지 변경 및 사업 규모 축소 추진 (관찰데크와 주차장을 중심으로 부지 여건에 맞는 사업 내용으로 조정) 제6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기간 내에서는 사업 제외
	몽금포 서해문화 공연장	평가결과 종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관 감상 중심의 단편적 백령도 관광경험을 보완하고, 숙박이 필수적인 백령도 관광특성에서 야간관광 경험을 창출하는 백령도의 차별적인 지역성을 표현할 수 있는 사업 공간 규모가 협소(바닥 54평)한 기존 심청각 및 권리 관계가 복잡한 주변 사유지 활용 한계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려운 지역성 고려 시 공연과 전수 프로그램 등 인적자원 기반 운영 한계
		조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연장을 중심으로 개발이 가능한 부지로 입지 변경 복합문화시설로 개발하며, 전사·영상·공연이 가능한 문화콘텐츠 개발
	동백나무 테마단지	평가결과 종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유지 매입 필요성, 지형 조건, 사업 예상 효과 등을 고려하여 동백나무 생태자원 관리 및 이용 편의 증진 중심으로 사업 조정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체수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가용부지 등을 고려한 신중한 사업 규모 결정
		조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관광객 동선 및 이용상에서 지원적 형태의 시설 정비와 생태적 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는 관리 차원에서의 보완사업으로 축소 후 추진 많은 유지관리비가 요구되는 시설 지양 및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한 시설 도입
	연평도 평화기원 등대언덕*	평가결과 종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 추진사업으로 집행 효율성은 우수하나, 향후 운영에 대한 사전 준비 부족 2018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 정도를 고려 시 2018년 사업 완료 가능
		조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 계획대로 사업 추진 기 완료된 안보둘레길, 퇴역함정 전시사업, 추진 중인 안보수련원 등에 대한 세부 운영 계획 수립
강화군	한겨레 열 체험공원	평가결과 종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겟에 대한 명확한 설정 및 이들을 유인할 수 있는 도입시설 계획 필요 - 현재 등산객 중심의 이용에서 가족 단위 등 수요 확대 단순 전시 콘텐츠에서 벗어나 전사영상체험·공연 등 복합 콘텐츠 개발 필요
		조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천마당, 단군놀이터 등 콘텐츠형 시설과 관련하여 콘텐츠 기능 강화 및 보완 후 추진 하늘전망대, 주차장, 일부 부대시설 등은 현행대로 변경 추진
	호국역사 스토리 탐방로	평가결과 종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호국역사 컨셉의 스토리 탐방로 조성사업이 평화누리길, 행자부 해안도로 개설사업 등으로 인해 산이포 마을 재현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이는 기존 계획의 목적성과 상이 사업 내용에 있어서도 매력적인 콘텐츠 없이 사라졌던 마을의 외형만을 재현하는 사업으로 성공 여부 불투명, 타당성 부족
		조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제외

주 : * 연평도 평화기원 등대언덕 사업은 집행사업

2. 평가 결과

1) 물범 생태관찰센터

(1) 기존 계획안¹⁾

■ 사업 개요

- 위 치 : 웅진군 백령면 백령도 진촌리 일원
- 사업기간 : 2012~2015년
- 총사업비 : 14,147백만원(국비 7,073.5백만원, 지방비 7,073.5백만원)
- 사업내용
 - 천연기념물 제331호 점박이 물범의 생태를 근접 관찰하기 위한 기반시설 조성

■ 세부 사업 내용

- 사업 내용은 전망학습관, 점박이 물범의 집, 관찰데크 등임

구분	도입 시설	세부 내용
전시, 학습	전망학습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범이 서식하는 물범바위 및 인근지역 관찰 - 1층: 물범생태안내관, 황해바다 생태교육관 - 2층: 전망대, 매점 및 휴게공간
체험지구	점박이 물범의 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범 캐릭터를 통해 서해 5도를 종합적 안내 - 서해5도정보관, 보호대상해양동물교육관
	관찰데크	• 물범을 가능한 최근접에서 관찰할 수 있도록 조성
지원지구	소형보트 선착장	• 소형보트 선착할 수 있는 선착장 조성
	주차장 등	• 방문객을 위한 지원시설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09), 평화생명지대 광역관광개발계획 수립



1) 기존 계획안은 문화체육관광부(2009), 평화생명지대 광역관광개발계획에 따름.

(2) 평가 결과

① 사업 준비도

■ 사전 점검 요인

- 문화체육관광부의 광역권 조성계획 이후 군 차원에서 별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부지 매입, 인허가 등 사전 행정 절차는 미 시행됨.
- 2010년 웅진군에서 추진한 ‘웅진군 백령도 국토 끝 섬 관광자원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통해 기존 광역권 계획에 대해 조정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이후 추가적인 사업 추진은 없음.
- 군에서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토지매입비 확보의 어려움, 문화재(감람암포획 현무암 분포지) 지정 구역에 따른 개발 행위 제한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호소함.
- 군 차원에서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토지매입 협의, 인허가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 등 제반적 사전 행정 절차 추진이 필요함.

■ 입지 적합성

- 기존 계획 상 사업대상지는 현재 인삼밭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전체 사유지로 구성됨.
- 군에서 2010년 대상 부지에 대한 매입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토지 소유주가 매도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016년 현재도 군에서는 토지 매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물범 서식지는 백령도의 차별적인 자원으로 이를 지원하는 관찰센터 사업의 필요성은 높으나, 백령도의 입지 특성 상 물범 생태관찰센터를 통해 대규모의 신규 관광객 창출 효과를 기대하는데 한계가 예상됨에 따라 사업 규모를 현실적인 관점에서 축소 조정하고, 이에 맞는 사업 대상지의 조정이 필요함.
- 이와 관련하여 사유지 매입 난항, 사업 규모 과다에 따른 해소방안으로 해안에 접한 국유지(국방부, 초소) 일부를 활용하여 관찰데크 등 물범 관찰의 지원시설 수준에서 사업 부지 위치 및 규모 조정 검토가 요구됨.

② 내용 적합성

■ 사업 목적 부합성

- 백령도 점박이 물범은 멸종위기종 II급으로 천연기념물 제 331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진촌리 물범바위 일원은 물범이 가장 많이 서식하는 지역으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 및 관광자원화 노력이 필요함.

- 이와 관련하여 물범의 생태를 근접에서 관찰하기 위한 기반시설 차원에서의 시설 조성은 타당한 것으로 평가됨.
- 단, 백령도의 입지 특성 및 여행사 패키지 중심의 백령도 관광 구조를 고려할 경우 대규모의 신규 관광객 창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백령도의 관광경험을 보완·확장하는 차원에서 의의를 두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 사업 규모의 적정성

- 물범 생태관찰센터의 관광객 유발 규모, 향후 시설 유지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기존 141억원의 사업 규모는 과도한 것으로 평가됨.
- 또한 기존 15,000㎡ 규모의 사업부지 역시 대규모 관광객의 새로운 수용 보다는 기존 관광객의 관광 활동에서 새로운 경험을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할 경우 과도한 것으로 평가됨.
 - 군차원에서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토지매입비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토지매입 역시 토지소유주의 매도 의사가 없음에 따라 토지 매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며, 이에 대체 부지의 확보 필요
- 이와 관련하여 사업대상지 변경 및 규모 축소 시 기존 사업 계획 중 전망학습관, 점박이 물범의 집 등은 제외하고, 관찰데크와 주차장을 중심으로 대상지 여건에 부합하도록 적정 규모 수준에서 조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사업 특화성

- 물범 생태관찰센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점박이 물범 서식지를 관찰할 수 있다는 자원적 매력성과 차별성을 보유하고 있음.
 - 단, 공공의 예산을 통해 개발되는 관찰데크와 주차장은 관광객 지원시설로서의 특성에 따라 시설 자체의 매력성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 물범을 근거리에서 관찰할 수 있는 호기심 유발시설로서 독특한 형태의 관찰데크를 설치하되, 주변 해변 지역과의 조화로운 개발을 통해 환경적 가치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계획 추진이 필요함.
 - 과거 해병대 초소로 사용된 해안선 근접 부지에 독특한 형태의 야외 관찰데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부지 검토 필요
- 또한 해변 안쪽 지역까지 관광객들이 이동하여 물범의 관찰과 해안 감상을 동시에 편하게 할 수 있는 기반 정비를 통해 자원의 가치성을 배가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③ 집행 가능성 및 효과 기대성

■ 운영 가능성

- 2010년 국토 끝섬 관광자원화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이후 구체적인 실행 계획 및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이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함.
- 천연기념물이라는 자원적 특성, 문화재(감람암포획 현무암 분포지) 지정 구역에 따른 개발 행위 제한 등 제약성에 대해 이해관계자를 사업 추진 과정에 참여시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문화재적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해안변 시설 위치 및 인근 지역 내 군사보호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군과의 사전 협의 절차의 추진이 필요함.
- 또한 지역 사회의 참여를 통해 마을 주민을 통한 관리 및 지속가능한 시설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사업 실현 가능성

- 물범 생태관찰센터는 기존 계획상에 2012~2015년 사업으로 계획 기간이 경과되어 중간 평가 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 제반 행정 절차 및 토지 매입 등 사전 절차의 미 이행에 따라 사업 추진 지연이 예상되며, 우선적으로 토지 매입 및 인허가 절차, 군부대 협의 등의 추진을 통해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사업 부지가 가지는 위치적 한계성으로 인해 기존 사업부지와 도로 연결 해안변 사업 부지 이외에는 추가적인 사업부지 확보가 불가함에 따라 토지 매입 가능성, 군부대 협의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추진의 지속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사업의 효과성

- 백령도의 관광 구조와 대상지 개발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광객 유입 효과 보다는 관광객의 관광경험 보완 및 질적 확장 차원에서 접근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예측하고, 이에 맞는 사업계획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백령도 관광을 주도하고 있는 지역 내 여행업체와 연계하여 백령도 관광루트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다년간 백령도 물범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환경단체 등과의 생태관광 콘텐츠 개발 협력사업 추진이 필요함.
- 지역 주민의 경제생활 향상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이를 위해 지역 주민을 어떻게 참여시킬지에 대한 협의 및 사전 준비가 필요함.

2) 몽금포 서해문화 공연장

(1) 기존 계획안

■ 사업 개요

- 위 치 : 웅진군 백령면 백령도 진촌리 심청각 일원
- 사업기간 : 2016~2020년
- 총사업비 : 6,592백만원(국비 3,296백만원, 지방비 3,296백만원)
- 사업내용
 - 몽금포 타령, 심청전의 공연 관람 및 전수 등을 위한 문화체험 공간 조성

■ 세부 사업 내용

- 주요 사업 내용은 심청각(리모델링), 몽금포 공연장, 관찰데크 도입 등임.

구 분	도입 시설	세부 내용
전시 및 교육	심청각(리모델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몽금포 타령, 심청전 등 서해 5도 관련 문화 전시 • 몽금포 타령 및 심청이 안내관
	몽금포 공연장 (심청이의 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청전에 나온 심청이의 집을 모티브로 조성 • 1층 : 몽금포 타령, 심청전 등 서해문화 공연장 • 2층 전수장 및 매점, 휴게공간, 캐릭터 판매소
체험지구	관찰데크	• 장산곶 및 인당수, 연봉바위 등이 위치한 지점으로 스토리보드 조성
지원지구	상가 및 관리센터	• 몽금포 서해문화 공연장의 전반적 관리
	주차장	• 방문객을 위한 지원시설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09), 평화생명지대 광역관광개발계획 수립



몽금포 서해문화 공연장 마스터플랜

(2) 평가 결과

① 사업 준비도

■ 사전 점검 요인

- 물범 생태관찰센터와 동일하게 문화체육관광부의 광역권 조성계획 이후 군 차원에서 별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인허가 등 사전 행정 절차는 미 시행됨.
- 기존 계획 상 심청각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공연장으로 계획하였으나, 기존 심청각 건축면적이 180㎡(연면적 360㎡)으로 백령도 체류 인원 기반한 공연 관람객 수용력을 고려할 때, 공간 규모가 협소하여 기존 심청각을 활용한 리모델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역시 군 차원에서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인허가 등의 사전 행정 절차 추진이 필요함.

■ 입지 적합성

- 현재 심청각 부지는 3개의 필지로 구성되어 있고, 주차장과 건물이 들어서 있는 곳은 군유지 소유이며, 탱크가 설치되어 있는 우측 부지는 사유지(산 146-13임)로 구성됨.
- 특히 사유지는 20인의 공동 명의로 권리 관계가 복잡하여 사업 추진에 구조적인 제약요소를 지니고 있음.
- 기존 계획 상 심청각 시설은 공간 규모 협소에 따라 신규 개발 사업이 어려우며, 심청각 부지 내 잔여지는 사유지로서 토지 매입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사업 대상지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백령도내 적정 사업 대상지 변경과 심청각 사유지에 대한 토지 매입 협의를 동시에 추진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 필요

② 내용 적합성

■ 사업 목적 부합성

- 몽금포 서해문화 공연장은 3대 고전 중 하나인 심청전 중 인당수에 몸을 던지는 장면과 연꽃을 타고 살아난 장면 등이 백령도와 장산곶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몽금포 타령의 배경이 되는 황해 장산곶과 근접하고 있는 입지성을 기반으로 백령도의 차별적인 지역성을 표출할 수 있는 사업임.

- 이와 관련하여 지역의 자원성과 스토리를 활용한 공연장 조성 사업은 사업 목적의 부합성이 우수한 사업으로 평가됨.
- 단, 전문 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는 지역 실정, 지속적인 공연 콘텐츠를 기획하고, 실행해야 하는 사업 특성을 고려할 경우 공연장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되며, 단계적, 효율적 사업 추진 전략 마련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필요 시 초기에는 인적자원 의존성이 낮은 영상물을 활용하되, 공연 기능은 기획전 형태로 추진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사업 추진

■ 사업 규모의 적정성

- 기존 계획 상 몽금포 서해문화 공연장의 사업비 규모는 심청각 리모델링, 몽금포 공연장, 관찰데크, 상가 및 관리센터, 주차장 등의 시설 조성 공사비(45억원)와 전시 콘텐츠 구축, 공연 프로그램 개발 등 콘텐츠 사업비(18억원) 등으로 구분됨.
- 기존 심청각을 활용한 리모델링을 통해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인해 대상지 변경이 불가피한 현실을 고려할 때 공연장 중심의 시설 개발 및 공연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공연장 규모 설정 시 백령도 숙박 규모를 고려한 명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 관람 규모를 설정하고, 이에 기반한 공연장 규모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추가적으로 대체 부지의 개발과 동시에 공연장의 효율적인 활용을 고려하여 단순 공연장이 아닌 복합문화시설 형태로 사업 변경을 통해 지역주민이 연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 변경 검토가 필요함.

■ 사업 특화성

- 심청각을 중심으로 심청전과 몽금포 타령을 활용한 서해 5도 관련 문화공연장 조성 콘텐츠 및 프로그램 도입 사업으로서 자연자원 위주의 백령도 관광자원의 다양성을 마련하고, 문화의 섬으로서 백령도의 자원적 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평가됨.
- 또한 경관 감상 중심의 단편적인 백령도 관광경험을 보완하고, 숙박이 필수적인 백령도 관광 특성에서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감동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업으로 평가됨.
- 단순 심청이에 대한 패널 형태의 소개가 아닌 문학적인 기반에 관광객 체험형 공연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백령도 관광의 매력도가 상승되는 효과 기대
- 이와 관련하여 몽금포 서해문화 공연장 조성사업 자체의 사업 목적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나 단, 실제 공연장에 조성되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연 콘텐츠의 구성 방안 및 공연 인력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준비가 필요함.

③ 집행 가능성 및 효과 기대성

■ 운영 가능성

- 초기 광역권 계획 이후 구체적인 실행 계획 및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이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함.
- 본 사업은 공연장의 하드웨어 보다는 공연 콘텐츠 및 인력 확보의 소프트웨어가 더욱 중요시되는 사업으로서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함.
 - 지역 내 문화예술 및 공연 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백령도 특성에 맞는 공연 콘텐츠의 발굴과 이를 시연하는 단계별 전략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우선적인 방향성을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연장 추진 방향 및 규모, 운영 방향 등 설정 필요
- 지속가능한 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백령도 관광을 주도하고 있는 지역 내 여행업체와 연계하여 백령도 관광 프로그램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 사업 실현 가능성

- 몽금포 서해문화 공연장은 기존 계획상에 2016~2020년 사업으로 계획 기간이 경과되어 중간 평가 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 사전 계획 미 추진에 따라 물범 생태관찰센터와 마찬가지로 사업 추진 지연이 예상되며, 우선적으로 대체 부지에 대한 부지 선정 또는 부지 미 선정 시 기존 심청각 잔여 부지의 토지 매입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한편 야간 관광활동이 전무한 백령도 관광 활동의 특성에서 백령도의 역사·문화적 자원성을 기반으로 조성되는 몽금포 서해문화 공연장은 공연 콘텐츠의 자원성이 수반될 경우 타 사업 대비 지속적인 수요 창출이 가능한 사업으로 평가됨.

■ 사업의 효과성

- 몽금포 서해문화 공연장은 기존 백령도 관광의 질적 환경 개선, 관광객에게 새로운 경험 요소 제공, 최근 관광 트렌드가 반영된 문화 체험적 요소 반영 등을 고려할 때 지역 관광 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높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됨.
- 단, 섬 지역의 수요 창출 어려움, 상시 공연 인력 충당의 어려움 등 직면하고 있는 사업의 제약요인으로 인해 연중 사업 효과의 지속성을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영상 등의 대체재의 효과적인 보완과 단계별 공연 규모의 확대 전략 등을 통해 사업 효과의 지속성과 상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또한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지속성과 상시성을 보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함.

(3) 사업 계획 조정

■ 사업 내용

- 심청각 리모델링, 전망데크, 관리센터, 주차장 등의 사업을 공연장 중심으로 사업 내용이 조정될 필요가 있음.
- 기존 사업 대상지의 공간 규모가 협소하여 시설 개발이 용이한 타 부지로 사업 대상지 변경 추진이 필요함.
 - 웅진군 소유 부지를 전제로 변경 추진하며, 백령도 숙박 거점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진촌 일대 적극 검토 필요
- 공연 인력 확보의 제약성 및 백령도 관광객 유입 규모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시설 활용도를 위해 단순 공연장이 아닌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복합적으로 이용 가능한 복합문화시설 형태로 추진함.
 - 초기 인적자원 의존성이 낮은 영상물 중심으로 활용하며, 공연 기능은 기획전 형태로 추진하고 이후 점진적 확대 계획

■ 투자 계획

- 몽금포 서해문화 공연장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우선적인 입지 변경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신규 입지 검토, 기본 계획 및 토지 매입 등의 일정 기간의 사전 업무 추진이 요구됨에 따라 2019년부터 본격적인 국비를 투입할 계획임.
- 사업 기간은 예산 규모 및 단일 건축물의 발주 특성을 고려하여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으로 조정을 추진함.

<표 II-17> 연차별·재원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	총 사업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국비	3,296	—	—	500	1,500	1,296
시비	1,648	—	—	250	750	648
군·구비	1,648	—	—	250	750	648
민자	—	—	—	—	—	—
총계	6,592	—	—	1,000	3,000	2,592

3) 동백나무 테마단지

(1) 기존 계획안

■ 사업 개요

- 위 치 : 웅진군 대청면 대청리 일원
- 사업기간 : 2016~2020년
- 총사업비 : 4,755백만원(국비 2,377.5백만원, 지방비 2,377.5백만원)
- 사업내용
 - 천연기념물 제66호 동백나무 자생지에 대한 정비 및 관광자원화

■ 세부 사업 내용

- 주요 사업 내용은 동백나무 정원, 동백미인 다도원, 산책로 및 포토존 도입 등임

구 분	도입 시설	세부 내용
전시, 교육	동백나무 정원	• 기존 자생지 재정비 및 확장
	동백미인 다도원	• 동백나무 자생지 종합 안내소
체험시설	산책로 및 포토존	• 뛰어난 경관지역 확보를 통해 포토존 설치
지원지구	관리센터	• 동백나무 테마단지의 관리 담당
	주차장	•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09), 평화·생명지대 광역관광개발계획 수립



(2) 평가 결과

① 사업 준비도

■ 사전 점검 요인

- 동백나무 테마단지는 계획 단계의 사업이며, 문화체육관광부의 광역권 조성계획 이후 군 차원에서 별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인허가 등 사전 행정 절차가 미 시행됨.
- 군에서 사업대상지가 사유지로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상 토지 매입비 확보의 어려움, 대상지 주변 문화재 구역으로 개발시 행위 제한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호소함.
- 역시 군 차원에서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토지매입 협의, 인허가 등 제반적인 사전 행정 절차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함.

■ 입지 적합성

- 사업대상지는 천연기념물 제66호로 지정된 동백나무 자생북한지 연접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체 사유지로 구성됨.
- 초기 계획 대비 동백나무 자생북한지와 사탄동 마을간 도로 연결 공사로 인해 도로 정비 및 소형 주차장이 기 설치되어 있음.
- 동백나무 자생지를 중심으로 정비 및 자원화 사업을 통해 관광객 집객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의 특성을 고려할 경우 사업대상지로서 입지는 적합한 것으로 평가됨.
- 단, 52,000㎡의 부지를 대상으로 동백나무 정원, 동백미인 다도원, 산책로 및 포토존, 관리 센터,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기존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대청도의 관광구조 특성, 자원화를 통한 신규 관광객 창출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사업 규모의 축소가 요구되며, 이를 고려할 경우 부지 규모 역시 대폭 축소하고, 기존 시설 정비 중심으로 조정이 필요함.
 - 대청도의 차별적인 생태자원의 지역성을 표현할 수 있는 사업이며, 자원 관리의 필요성도 높은 사업인데 비해 사업을 통해 신규 관광객 창출 효과를 기대하기에 다소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합리적인 사업 규모로 부지 및 시설 조정 필요

② 내용 적합성

■ 사업 목적 부합성

- 천연기념물 제66호의 생태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최북단의 동백나무 북한자생지로서의 자원적 가치를 활용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 및 관리하는 노력이 요구되며, 이를 고려할 경우 자생지 주변의 정비 및 관광자원화는 타당한 것으로 평가됨.
- 단, 대청도가 가지고 있는 관광구조의 특성, 대청도 내 타 자원과의 경쟁 우위 여부, 관광

자원으로서의 매력도 등을 고려하여 현재 자원이 지닌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시설 계획 조정이 필요함.

- 대청도는 현재 백령도와 연계하여 1박을 체류하는 형태의 관광 특성이 있으며, 낚시 및 해안 경관 감상 중심의 자원성 보유
- 현재 동백나무 자생복한지는 대청도 주요 관광목적지로 분류되어 있지 않으며, 개화시기를 중심으로 제한적인 방문 활동이 일어남.
- 이와 관련하여 동백나무 북한자생지로서 생태적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지원 사업 중심으로 사업 계획 조정이 필요함.

■ 사업 규모의 적정성

- 동백나무 테마단지의 관광객 유발 규모, 향후 시설 유지관리의 효율성, 관광자원으로서의 매력도 등을 고려할 경우 기존 사업비 규모(48억원)는 과도한 것으로 평가되며, 합리적인 규모에서 사업비 조정이 필요함.
- 또한 기존 52,000㎡의 부지 개발 사업에서 벗어나 자생지 주변 개체수 복원 및 관광객 이용 지원시설 개발 형태로 사업계획 및 부지 개발 규모의 조정이 필요함.
- 이와 관련하여 부지형 개발 보다는 매바위 전망대 측과 연결되는 진입계단 정비, 도로변 공영버스 정차 공간 조성, 매바위 전망대에서 동백나무 자생지 안내·유도 표지판 설치 등으로 사업 내용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업 특화성

- 천연기념물 제66호 동백나무의 최북단에 위치한 자생지라는 요소 이외에는 경관적 가치와 이용적 가치 측면에서 특화성이 부족한 사업임.
- 특히 과거 기록에 의하면 지름이 20cm에 이르는 큰 나무가 147그루가 있었고, 높이 3m에 지름 27cm의 큰나무도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으나, 현재는 큰 나무들을 찾기 어렵고, 몇 그루의 제한적인 개체수를 보유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대청도 동백나무 자생지는 동백나무가 자연적으로 자랄 수 있는 북쪽 한계지역이라는 학술적, 생태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으나, 개체수와 주변 환경을 고려할 경우 관광자원으로서 특화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 또한 도입이 예상되는 동백나무 정원, 동백미인 다도원, 산책로 및 포토존 등은 시설 자체의 특화성 보다는 기존 자원의 지원적 역할을 담당하는 보조적인 사업 특성을 가지고 있어 동백나무 테마단지 조성 이후 역시 사업 특화성을 확보하기에는 한계성을 보유함.

③ 집행 가능성 및 효과 기대성

■ 운영 가능성

- 동백나무 테마단지 역시 초기 광역권 조성계획 이후 구체적인 실행 계획 및 관리·운영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이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함.
- 천연기념물 지정 구역이 서식지 주변 156,396㎡으로 광범위하게 지정되어 있어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고려한 시설 계획 수립이 필요함.
- 본 사업 계획내 건축물이 포함된 동백나무 다도원, 관리센터 등의 경우 관리자의 상시 배치가 요구되는 시설로서 제외가 요구되며, 소규모의 동백나무 다도원 설치 치 동백꽃차 등의 연계 개발 및 무인 관리·운영 시스템에 적합한 형태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필요시 사탄동 마을의 참여를 통해 마을 주민이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며, 매바위 전망대와의 연계 자원화에 중점을 둔 사업계획 조정으로 이용성 확보가 필요함.

■ 사업 실현 가능성

- 동백나무 테마단지는 기존 계획상에 2016~2020년 사업으로 계획 기간이 경과되어 중간 평가 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 제반 행정 절차 및 토지 매입 등 사전 절차의 미 이행에 따라 사업 추진 지연이 예상되며, 우선적으로 토지 매입 및 인허가 절차 등의 추진을 통해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함.
- 대규모의 관광객 유발 보다는 동백나무 북한자생지로서 지닌 생태적 가치를 효율적으로 정비·관리하고, 방문객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는 차원에서 사업 규모 축소 및 전략적 개발을 통해 사업 실현성 및 투자의 효율성 확보가 필요함.

■ 사업의 효과성

- 대청도의 관광 구조와 동백나무 테마단지의 사업의 매력도 등을 고려할 경우 자원의 가치성을 제고하고, 관광객의 이용의 편의성을 개선시키는 차원에서 사업의 효과성을 예측하고, 이에 맞는 사업계획으로 추진이 필요함.
- 우선적으로 자생지 주변 정비와 더불어 개체수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동백나무 자생지의 가치성과 자원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전략 체계 마련이 필요함.
- 유지관리가 요구되는 불필요한 시설의 확대보다는 주변 정비와 기능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유지관리에서 웅진군의 재정적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는 기반 체계를 마련하여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3) 사업 계획 조정

■ 사업 내용

- 기존 관광객 동선 및 이용상에서 지원적인 형태의 시설 정비와 생태적 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는 관리 차원에서의 보완적인 사업 중심으로 축소 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과거에 비해 현재 개체수가 적은 형태로 자원성 제고를 위해 개체수 확보를 위해 자생단지 조성
- 단순 진입 금지 펜스만 있는 동백나무 자생지 보호를 위해 자생지 주변 정비

구 분	도입시설	세부내용
전시 및 체험시설	자생단지 및 공원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체수 확보를 위한 별도 자생지 및 식재 체험 공간 조성 • 방문객 쉼터 공간 조성(동백나무 테마 공원) • 포토존 조성
	자생지 재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자생지 보호를 위한 주변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탐방로 및 진입 계단, 보호책 정비 등
지원지구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객을 위한 편의 시설

- 기존 계획 상 동백미인 다도원 도입 시 무인 관리·운영되는 소규모 시설로 기 조성된 주차장 부지 일대 도입 검토가 필요함.

■ 투자 계획

- 동백나무 테마단지의 투입 대비 사업 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적인 형태의 시설 정비 수준인 15억원으로 사업 규모 조정이 필요함.
- 사업 규모 및 용진군 타 사업 추진 시기를 고려하여 2020년부터 2개년간으로 조정을 추진함.

<표 II-18> 연차별·재원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	총 사업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국비	750	-	-	-	250	500
시비	375	-	-	-	125	250
군·구비	375	-	-	-	125	250
민자	-	-	-	-	-	-
총계	1,500	-	-	-	500	1,000

4) 연평도 평화기원 등대언덕

(1) 기존 계획안

■ 사업 개요

- 위 치 : 웅진군 연평면 연평리 일원
- 사업기간 : 2014~2018년
- 총사업비 : 7,300백만원(국비 3,650백만원, 지방비 3,650백만원)
- 사업내용
 - 연평해전 및 북한의 해안포 포격 등 분쟁 지역인 연평도 내 안보를 테마로 한 시설 조성

■ 세부 사업 내용

- 주요 사업 내용은 평화안보 둘레길 조성, 퇴역함정 전시, 안보수련원 및 희망등대 조성임.

구 분	사업 기간	사업 내용
평화안보 둘레길 조성	201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 1,000백만원 • 사업내용 : 철책둘레길, 안내표지판, 정자, 교전상황 홍보관 등
퇴역함정 전시	201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 1,000백만원 • 사업내용 : 퇴역함정 전시 및 경관 조성 (참수리 고석정, 117톤, 37m×7m)
안보수련원 조성	2016~20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 4,000백만원 • 사업내용 : 연평 중고등학교를 안보수련원으로 리모델링 (숙박시설, 세미나실, 병영체험코스, 체육시설 등)
희망등대 조성	20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 1,300백만원 • 사업내용 : 등대형태의 전망대 건립

자료 : 웅진군청(2016), 내부자료



(2) 평가 결과

① 사업 기획성

■ 사전 점검 요인

- 평화기원 등대 언덕 사업은 당초 연평해전 및 북한의 해안포 포격 등 분쟁이 끊이지 않는 연평도내 안보를 테마로 시설을 구상하였는데, 집행 중인 사업 역시 평화안보를 기본 컨셉으로 유지하여 당초 계획과 부합하게 사업을 추진함.
 - 초기 계획은 안보교육관이 포함된 등대하우스를 중심으로 연평해전의 추모공간인 중앙광장, 산책로, 전망 카페테리아 등의 시설 구상
 - 이후 군에서는 2010년 북한의 해안포 포격 이후 안보교육 강화를 위해 안보교육장이 조성됨에 따라 둘레길과 안보수련원을 중심으로 사업 계획 조정 추진
- 당초 계획된 일부 사업은 행정자치부 지원 사업과 중복되어 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통해 사업을 변경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평가됨.
 - 연평해전의 추모 공간(중앙광장 등)은 2010년 조성된 평화공원과 중복되며, 연평 해전 관련 스토리 중심의 안보교육관은 2010년 북한의 해안포 포격 이후 안보교육 강화를 위해 2012년 말 연평도 안보교육장 조성으로 중복 발생
 - 이러한 중복 사업을 평화안보 둘레길, 안보수련원 조성, 희망등대 조성 등으로 변경 추진
- 현재 군에서는 연평도 안보관광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없이 단위 사업별 설계 및 공사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완공된 사업과 완공 예정인 사업을 모두 아우르는 연평도 평화안보관광 종합 활성화 계획 수립으로 연평도의 장기적인 청사진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시설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함.

■ 사업 특화성

- 연평해전, 북한의 해안포 포격 등 연평도가 가지고 있는 장소성 측면에서 안보관광을 특화시키는 의미에서 사업의 특화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개별 사업별 요소에서는 관광활동의 지원형 시설 중심으로 변경되어 다소 매력성이 저하됨.
- 단순 하드웨어 중심의 시설 조성에서 벗어나 사업별로 관광객들에게 어떤 경험요소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소프트 콘텐츠 계획을 보완하여 단순 탐방과 관람이 아닌 평화안보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기능성 보완이 필요함.
- 시설별 독특한 체험거리를 만들고, 시설간 연계성 강화를 통해 상품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전략 보완이 필요함.

② 집행 효율성

■ 사업 진척률

- 전체 7,300백만원의 예산 중 2016년 기준 약 4,000백만원의 예산이 교부되어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총 5년의 사업기간(2014~2018년)의 사업 기간을 고려할 경우 적정 수준의 사업 진척률을 기록함.
- 2014년 안보둘레길 사업(1,000백만원)은 기 완료되었으며, 2015년 퇴역함정 전시사업(1,000백만원)은 2016년 7월 최종 완료됨.
 - 2015년 9월 실시설계 용역 완료 이후 퇴역함정 전시공사, 조경공사, 전기공사로 구분되어 추진 중이며, 2016년 5월 퇴역함정 전시 완료
 - 조경공사와 전기공사는 2016년 4월에 발주되어 2016년 7월 완료
- 2016년 안보수련원 조성사업은 2015년 12월 조성계획 수립 용역 시행, 2016년 5월 설계 용역이 완료되었으며, 이후 리모델링 공사 추진, 체험시설 및 부대시설 공사가 추진될 예정임.
 - 2016년 5월 구)연평 중고교 매매계약 체결이 완료되었으며, 2017년 말까지 리모델링 공사 추진, 체험시설 및 부대시설 공사 추진 등 계획
 - 구)연평 중고교 부지는 교육청을 통해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1,400백만원의 예산을 군비를 통해 조달 예정이며, 현재 2016년 300백만원을 시작으로 교육청 재산 5년 분할 매입을 추진할 예정
- 2018년 희망등대 건립사업은 2017년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한 이후 2018년 말까지 등대 형태의 전망대 건립 계획을 추진할 예정

■ 추진 체계의 적절성

- 연평도 평화기원 등대언덕 사업은 웅진군 관광문화과를 중심으로 연평면 담당자와 협력하여 설계 및 공사를 추진하고 있음.
- 현재 사업 추진 구조는 공사 중심의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향후 시설 운영을 고려하여 전문가와 지역 내 운영을 기반으로 한 조직과의 연계 체계가 미확보되어 있음.
- 특히 안보수련원은 관리보다는 운영 중심의 시설 특성에 따라 웅진군을 중심으로 연평면, 운영자문위원(지역 전문가 포함), 지역주민 등이 포괄적으로 구성된 사업추진 체계를 구축하여 향후 운영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희망등대 건립 시 군사시설의 특성상 관광객의 출입이 제한될 수 있음에 따라 사전 군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원활한 시설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이 필요함.

■ 추진 과정의 효율성

- 2015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지역관광기획평가센터를 통해 연평도 평화기원 등대언덕 조성사업에 대한 집행평가 실시하였는데, 기본계획 및 관리·운영계획의 수립과 안보수련원의 개발방향, 적정규모 설정 및 운영방안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여 조건부 적합으로 판정됨.
 - 각각의 사업을 평화안보관광지라는 통합적 측면에서 개발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기본 계획과 관리·운영계획 수립 필요
 - 안보수련원 개발을 위해 수요분석에 기반한 규모 설정, 시설 도입 및 운영방안 마련 필요
- 이후 기본계획 및 관리·운영계획 수립, 안보수련원 운영방안 제고에 대한 별도의 계획 수립 등의 노력이 부족함.
- 단, 안보수련원 운영 시 차별화 된 관광프로그램 확보를 위해 OP를 활용한 관광전망대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문화체육관광부 계획 조정 과정에서 승인 불가 판정을 받아 현재 보류상태에 있음.

③ 운영 가능성

■ 관리 운영의 적절성

- 사업 전체에 대해 운영 주체가 모호하고, 관리 운영 방식과 전담 인력 조직에 대한 구상이 부족함.
 - 관리·운영계획 미 수립에 따라 관리·운영주체 및 방식, 세부적인 시설 운영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막연하게 연평면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
- 안보수련원 준공 이후 학생단체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들의 요구도를 반영한 시설 계획 및 프로그램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세부적인 관리·운영계획 수립이 필요함.

■ 지속 발전 가능성

- 섬이라는 입지 특성으로 인해 지속가능한 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주민 참여가 적극적으로 요구되며, 이에 대한 사전 준비와 지역주민 참여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안보둘레길, 퇴역함정 전시, 안보수련원, 희망등대 등의 사업간 유기적인 연계 운영을 통해 자원성을 제고시키고, 관광객의 질적 만족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지역주민 상생형 특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특히 마을 공동체가 참여하여 지역 특산품 및 해산물 등을 판매하거나 고부가가치형 음식 및 메뉴 개발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주민 소득 증대 및 고용 창출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3) 사업 계획 조정

■ 사업 내용

- 연평도 평화기원 등대언덕의 주요 사업은 평화안보 둘레길 조성사업과 퇴역함정 전시, 안보수련원 조성, 희망등대 조성 사업 등임.
- 이중 평화안보 둘레길 조성사업은 2014년 완공되었으며, 2015년 퇴역함정 전시사업은 2016년 7월에 완료됨.
- 이외 안보수련원 조성 사업은 공사가 추진될 예정이며, 2017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8년 희망 등대 조성사업이 계획 중임.
- 집행 중인 사업의 특성과 평가 사업의 세부 사업에 대한 조정 사항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계획된 사업 내용과 동일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됨.

■ 투자 계획

- 연평도 평화기원 등대언덕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며, 사전에 문체부와 협의된 예산 집행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함.
- 전체 사업 예산 7,300백만원 중 2016년 이전에 49% 수준인 3,590백만원을 교부 및 집행 하고 있으며, 2017년 3,710백만원, 2018년 1,850백만원, 2019년 1,860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계획됨.

<표 II-19> 연차별·재원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	총 사업비	2016년 이전 계	제6차 권역계획기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국비	3,650	1,795	1,855	925	930	—	—
시비	1,825	897.5	927.5	462	465.5	—	—
군·구비	1,825	897.5	927.5	462	465.5	—	—
민자	—	—	—	—	—	—	—
총계	7,300	3,590	3,710	1,850	1,860	—	—

5) 한겨레 얼 체험공원

(1) 기존 계획안

■ 사업 개요

- 위 치 : 강화군 화도면 상방리 마니산 관광지 내
- 사업기간 : 2012~2015년
- 총사업비 : 10,482백만원(국비 5,241백만원, 지방비 5,241백만원)
- 사업내용
 - 민족의 영산인 마니산 진입부에 한겨레 얼과 기를 체험할 수 있는 테마공원 조성

■ 세부 사업 내용

- 사업 내용은 한겨레 얼 전시관, 개천극장, 기 체험관, 야외공연장, 기념품 판매장 등임.

구분	도입 시설	세부 내용
전시 및 관람	한겨레 얼 전시관	• 단군에 관련된 사료 및 청동기 생활상 전시
체험	개천극장	• 제례, 연극, 무용, 인형극 등 제작 및 상영
판매	기 체험관	• 명상, 단전호흡, 기공 등 정신수양을 위한 공간
	야외공연장	• 한겨레 얼 체험공원의 다양한 행사 진행 공간
안내 및 지원	기념품 판매장	• 신화를 소재로 한 캐릭터, 민속공예품 등 판매
	편의·휴게시설	• 화장실, 주차장, 매점 등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09), 평화·생명지대 광역관광개발계획 수립



(2) 변경 계획안²⁾

■ 변경 사업 내용

- 강화군에서 변경한 사업 내용은 주차장 등 공공편의시설의 정비와 하늘 전망대, 단군광장, 개천마당, 단군스토리길 등임.

구분	사업 내용	규모
하늘 전망대	• 참성단 헬기장 인근 관람대 확장 및 보강	400m ²
단군광장(구 개천광장)	• 개천대축제 상설 행사장으로 음향 및 영상 장비를 구축하여 참성단의 실황이 중계될 수 있는 시설 설치 • 주말 농산물판매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 (마니산 주차장 인근의 불법 노점상 이동) • 각종 공연 개최	2,800m ²
단군놀이터(구 캠핑장)	• 단군 주체 숲 속 놀이터 및 잔디 광장 조성 (청동기, 철기 문화 및 단군, 환웅의 이미지를 이용한 캐릭터 놀이시설 및 스토리 보드 설치)	11,270m ²
개천마당(구 국궁장)	• 마니산 등산객의 휴식 공간 및 만남의 광장 • 참성단 모형 재현	1,700m ²
단군스토리길	• Barrier Free 路 구성 (주차장~개미허리 인근 4km) • 5,000년 역사 스토리텔링 로드	4km
공공편의시설 정비	• 주차장 정비, 화장실 및 주차관리실 등 편의시설 설치 • 평일 및 비수기 주차장 이용 오락시설 설치 (ex, 드론 연습장)	20,440m ²

자료 : 강화군 내부자료(2016)

- 사업 예산은 건축물 중심의 기존 계획에서 벗어나 관리·운영이 용이하며, 강화군의 재원 조달이 가능한 사업비 규모를 고려하여 5,700백만원으로 조정될 계획임.

구분	산출 기초 사업	금액(백만원)
합계		5,700
하늘 전망대	• 목조 데크 공사 (400m ²), 참성단~헬기장 구간 정비, 포토존 및 안내판 등	300
단군광장	• 공연장 리모델링(250m ²), 음향 및 영상시설, 다목적 비가림시설(900m ²), 포토존 및 안내판	600
단군놀이터	• 단군 캐릭터 어린이 놀이시설, 놀이터 주변 안전시설, 조경 및 캐릭터 존 (풍백, 우사, 운사 등)	600
개천마당	• 쉼터 조성(테이블, 벤치), 등산객 편의시설(식수대 등), 참성단 모형 재현, 조경 및 캐릭터 존(칠선녀 등)	800
단군스토리길	• Barrier Free 路 (20,000m ²), 스토리텔링 보드판, 5,000년 역사 스토리텔링로드 콘텐츠 개발, 포토존 및 안내판	900
공공편의시설 정비	• 주차장(20,440m ²) • 드론 연습장 관리 및 관광 안내시설	2,600

자료 : 강화군 내부자료(2016)

2)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의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 중간평가 시 강화군이 재원조달 가능성 및 관리용이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9년 기존 계획안의 변경안을 수립하여 평가를 받음.

(3) 평가 결과

① 사업 준비도

■ 사전 점검 요인

- 한겨레 얼 체험공원은 마니산 관광지 내 일부 지역을 사업대상지로 하고 있으며, 강화군은 2011년 마니산 관광지 조성계획변경(경미한 변경) 계획을 통해 일부 시설의 사업 계획을 반영함.
- 2016년 6월 현재 강화군은 한겨레 얼 체험공원의 실행 및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마니산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및 한겨레 얼 체험공원 조성사업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 예정에 있음.
 - 과업기간은 착수 후 180일간(2016년 말까지)이며, 한겨레 얼 체험공원 기본계획, 마니산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한겨레 얼 체험공원 기본설계를 추진할 예정

■ 입지 적합성

- 마니산 관광지 내 기존 시설지구를 활용하여 주차장 조성, 부대시설 보완, 테마시설 조성 등으로 사업이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 예정지 모두 균유지로 구성되어 있어 사업 추진의 효율성 및 입지 적합성이 우수함.
- 또한 기존 가용지 범위 내에서 테마시설 조성 및 신규 매입한 부지를 활용한 주차장 계획, 기존 보행로를 활용한 단군 스토리길 조성 등 활용 가능한 공간에 맞춤형 시설 조성을 통해 실행성을 제고함.
- 단, 도입 예정 시설이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지, 관광객 유발효과가 있는지, 자원의 매력성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함.

② 내용 적합성

■ 사업 목적 부합성

- 한겨레 얼 체험공원은 단군시대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민족의 영산인 마니산 진입부에 한겨레 얼과 기를 체험할 수 있는 테마공원 조성 사업임.
- 그러나 강화군에서 계획한 변경계획은 신규 관광객의 유발 및 자원성 제고 보다는 기존 마니산 방문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중심으로 조정되어 사업 목적 대비 타당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한겨레 얼 체험공원 사업의 전체 기조는 기존 마니산 등산객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마니산 등산객과 신규 관광 수요를 동시에 고려한 계획이어야 함.
- 따라서 세부 사업 내용 조정을 통해 기존 사업의 컨셉이나 취지를 반영하는 형태로 사업 내용 보완이 필요함.

■ 사업 규모의 적정성

- 강화군은 기존 계획을 유지관리의 효율성, 강화군 재정 규모의 합리성을 이유로 10,500백만원에서 7,300백만원으로 사업 규모가 축소됨.
- 부지 규모에 있어서도 주차장을 제외하고, 단위 시설 형태로 부지 면적을 조정하여 추진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예상되지 않음.
- 단, 기존 마니산 등산객의 편의 증진 사업 중심으로 사업 내용이 조정되면서 사업비가 축소됨에 따라 기존 사업의 컨셉이나 취지를 반영하는 형태로 사업 내용 조정 시 사업비의 확대가 예상되며, 향후 사업 추진 시 자원의 매력성을 높이면서 합리적인 시설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한 규모로 사업비 재조정이 필요함.

■ 사업 특화성

- 기존 계획 대비 강화군에서 추진하려는 사업이 신규 관광객 유발보다는 기존 관광객의 편의 증진형 사업 성격이 강하므로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사업으로서의 매력성과 차별성, 관광수요 창출 효과, 유사 사업과의 차별성 확보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사업 효과를 기대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와 관련하여 한겨레 얼 체험과 관련된 관광 콘텐츠 개발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단, 전시 콘텐츠에 의존하는 관광 콘텐츠 개발 및 전시관 계획은 운영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전시·영상·체험·공연 등 복합 콘텐츠 개발이 요구됨.
 - 이때 콘텐츠 기획·운영의 관건은 관리·운영 조직의 전문성이 확보될 때 가능하나 기존의 마니산 관광지 관리·운영인력을 통해 콘텐츠 기획·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강화군의 현실적 여건 하에 관리·운영 인력과 조직의 확보 가능성을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운영 가능한 수준에서의 관광 콘텐츠 기획·운영 필요
- 관광 콘텐츠는 등산객 중심의 기존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와 학교 단체, 기업 연수, 가족 단위 방문객 등 신규 시장 창출을 위한 콘텐츠로 구분할 수 있는데, 관광 콘텐츠 계획 수립 시 이를 복합적으로 고려한 시설 도입이 필요함.
 - 40~50대 이상의 등산활동에 의존된 현재의 마니산 방문 경험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 마련 기대

③ 집행 가능성 및 효과 기대성

■ 운영 가능성

- 초기 광역권 계획 이후 구체적인 실행 계획 및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이에 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한데, 현재 마니산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및 한겨레 얼 체험공원 조성사업 기본설계 용역을 준비하고 있어 용역 추진 시 이를 반영하여 추진이 필요함.
- 마니산 관광지는 강화군시설관리공단의 10명의 인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강화군과 상호 협의를 통해 신규 시설의 조성 및 개선 방안 등에 대해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향후 관리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단, 향후 도입되는 시설의 전략적인 시설에 있어서 관리·운영 조직과 인력 확보의 현실적 가능성을 고려한 콘텐츠 개발 및 관리·운영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음.
 - 현재 강화군시설관리공단을 통해 운영되는 형태는 매표 및 시설물 관리 중심의 인원 배치로 프로그램 운영형 시설 도입 시 이에 대한 인원 확보 및 프로그램 개발 필요

■ 사업 실현 가능성

- 한겨레 얼 체험공원은 기존 계획상에 2012~2015년 사업으로 계획 기간이 경과되어 중간 평가 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 설계 및 인허가 등 사전 절차의 미 이행에 따라 사업 추진 지연이 예상되나, 우선적으로 토지가 확보되어 있고, 마니산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환경영향평가(변경) 협의 요청 예정(2016년 12월 기준)으로 조성계획 변경 및 기본 설계 용역이 추진될 예정임.

■ 사업의 효과성

- 강화군에서 계획하는 사업 내용이 기존 등산객을 위한 지원시설 형태로 계획되어 기존 방문객의 질적 경험 개선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신규 수요 확대에는 한계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체험 공간을 창출하고, 기존 계획시설에 단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공디자인, 테마 놀이 공간 등 특화된 형태로 사업이 표현되어 사업 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세부 사업 추진이 필요함.
- 단군을 테마로 하는 단군광장, 단군 놀이터, 개천마당, 단군스토리길 등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컨셉과 컬러로 공간 전체를 디자인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 하드웨어 사업 이외에는 사업 공간 내에서 역사캠프(역사놀이) 등을 개최하여 자원을 경험하는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민간단체와의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방과 후 프로그램 등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4) 사업 계획 조정

■ 사업 내용

- 군에서 제안한 사업 내용 중 하늘전망대, 주차장, 일부 부대시설 등 지원형 사업은 현행 대로 변경을 추진함.
- 그 외 개천마당, 단군놀이터, 단군광장 등 단군 컨셉의 콘텐츠형 시설과 관련하여서는 콘텐츠 기능 강화 및 보완 후 추진이 필요함.
 - 단순 전시 콘텐츠에 의존하는 개발에서 벗어나 전시·영상·체험·공연 등 복합 콘텐츠 개발을 통해 경쟁력 확보
 - 단군 놀이터의 경우 단군 캐릭터만 입힌 놀이터가 아닌 놀이 자체를 통해 단군의 의미와 역사를 일깨우도록 계획
- 관광 콘텐츠는 등산객 중심의 기존 방문객에서 확대하여 학교 단체, 가족 단위 방문객 등 신규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콘텐츠로 세부 보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기본설계 추진 시 시설별 세부 콘텐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안 마련 후 사업 추진 필요

■ 투자 계획

- 한겨레 얼 체험공원은 현재 기본설계 용역이 발주 예정에 있어 2017년부터 예산이 투입 되는 것으로 계획됨.
- 사업 규모는 군에서 조정한 형태로 추진하며, 사업 규모를 고려하여 2017년부터 3개년이 투입되는 것으로 계획함.

<표 II-20> 연차별·재원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	총 사업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국비	3,650	500	1,850	1,300	—	—
시비	1,825	250	925	650	—	—
군·구비	1,825	250	925	650	—	—
민자	—	—	—	—	—	—
총계	7,300	1,000	3,700	2,600	—	—

6) 호국역사 스토리 탐방로

(1) 기존 계획안

■ 사업 개요

- 위 치 : 강화군 양사면 철산리~길상면 초지리 (L=27.66km)
- 사업기간 : 2012~2020년
- 총사업비 : 24,250백만원(국비 12,125백만원, 지방비 12,125백만원)
- 사업내용
 - 강화군 섬 둘레 해안선을 따라 산재된 조선시대 군사시설을 활용하여 스토리가 있는 테마 탐방로 조성

■ 세부 사업 내용

- 사업 내용은 평화전망대~당산리 5.49km의 신규 조성, 당산리~초지대교 22.17km 기존시설 정비 사업임.

구분	도입 시설	세부 내용
탐방	보행로	• 자갈길, 잔디길, 꽃길, 탕자나무길 등 조성
	자전거도로	• 안전을 위해 차도 및 보행로와 분리
지원지구	관리센터	• 해설사 대기실, 주차장, 자전거 대여소 등
	쉼터	• 방문객을 위한 지원시설(매점, 화장실)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09), 평화생명지대 광역관광개발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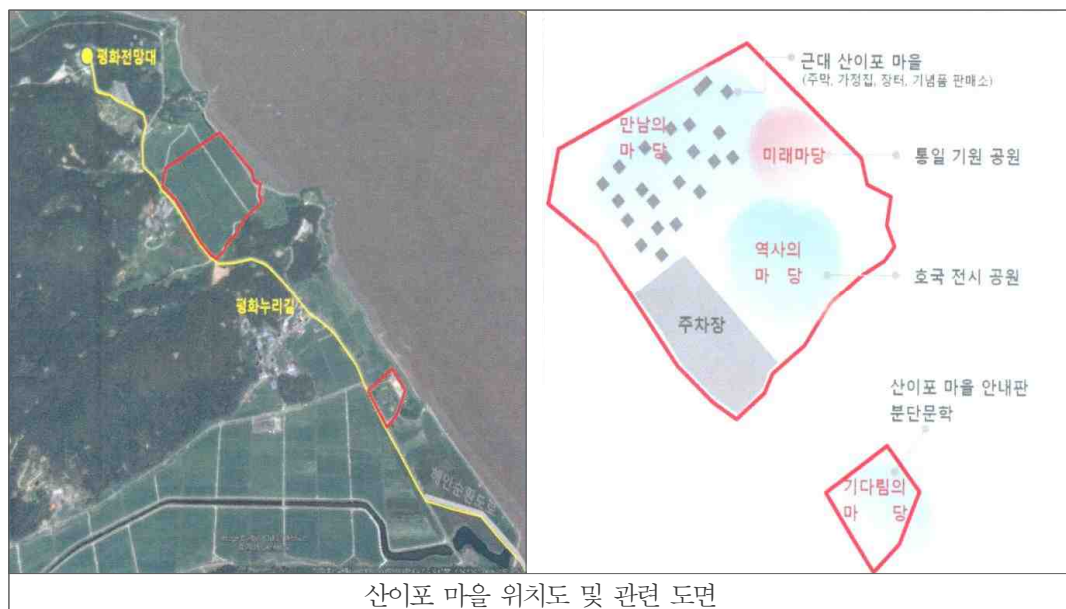
(2) 변경 계획안

■ 변경 사업 내용

- 강화군은 강화해안순환도로 개설 사업과 평화누리길 사업 등으로 인해 기존 계획사업이 부분적으로 완성되었으며, 사업 구간의 집중 투자를 통해 효율성을 개선한다는 목적으로 평화전망대와 연계하여 산이포 마을 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산이포 마을은 민통선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금은 흔적조차 없지만 남북 분단 이전 강화에서 가장 번성했던 마을로서 지적도를 보면 아주 세밀하게 지적이 나뉘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지역임.
- 사업 내용 변경에 따라 당초 242억원의 예산에서 176억원(토지매입비 27.5억원 포함)의 예산으로 조정하여 사업 추진 계획임.

구분	사업 내용	비고
만남의 마당 (근대 산이포 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동 (주막, 매점, 면사무소, 우체국, 가정집, 방앗간, 다방, 사진관 등) • 농산물 장터 (지역 농협 등 참여) • 화장실, 안내소 등 공공편의시설 설치 	—
미래 마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기원 공원 • 통일 관련 조형물 및 체험 시설 설치 	—
역사의 마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국 전시 공원 • 한국 전쟁의 역사 • 한국 전쟁사에서 강화도의 위치 (삼국시대 각축장, 고려항몽, 병자호란, 정묘호란, 병인양요, 신미양요) 	—
기다림의 마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이포 마을 스토리 및 분단 문학 소개 (스토리 보드 중심) 	—

자료 : 강화군 내부자료(2016)



(3) 평가 결과

① 사업 준비도

■ 사전 점검 요인

- 문화체육관광부의 광역권 계획 이후 군 차원에서 별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변경을 요구하는 사업과 관련해서도 기본계획 및 부지 매입, 인허가 등 사전 행정 절차는 미 이행됨.
- 변경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타당성 조사 없이 아이디어 수준에서 제시되고 있어 향후 타당성 조사와 콘텐츠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함.

■ 입지 적합성

- 사업대상지가 산이포 마을이 있었던 위치라고 하더라도, 해안 철책선과 맞닿아 있을 뿐 아니라, 농경지로 사용되고 있는 곳으로 대상 부지로 부적절함.
- 군에서 계획하는 53,664㎡의 부지 중 97%(52,038㎡)가 사유지로서 별도의 토지 매입이 요구되며, 민통선 내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출입이 자유롭지 못해 인근 평화전망대와 연계한 제한적인 시설 이용이 예상됨.

② 내용 적합성

■ 사업 목적 부합성

- 기존 계획은 호국역사를 컨셉으로 하는 스토리 탐방로 조성사업이었으나, 평화누리길 및 강화 나들길 조성 등으로 인해 산이포 마을 재현 사업으로 사업 내용이 변경되었으며, 이는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이 가진 목적성과 비교 시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됨.
 -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 중간평가 시 기존 사업을 새로운 컨셉의 신규 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방침
 - 기존 기본계획의 성격과 부합하지 않으며, 사업 내용 역시 과거 마을에 대한 인위적인 복원 중심의 사업 추진으로 인해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평가

■ 사업 규모의 적정성

- 기존 242억원의 예산을 176억원(토지 매입비 포함)으로 조정하였으나, 지속적인 유지관리비가 발생하는 단순 공원과 마을 재현사업에 대해 비교적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강화군의 부담이 예상됨.

■ 사업 특화성

- 매력적인 콘텐츠 없이 사라졌던 마을의 외형만을 재현하는 사업만으로는 그 성공 여부가 불투명함.
 - 민통선 지역의 개발사업으로서 사업의 매력성과 차별성, 관광수요 창출 가능성, 관광트렌드 변화 부합성, 관리·운영의 지속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전망이 어려움
 - 일부 유사사업의 경우 내부 콘텐츠가 없는 외형 건물만의 마을 재현으로 조성 이후 재방문이 줄어들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비로 지자체의 높은 부담 발생
- 산이포 마을을 단순 전시관 형태로 조정 개발 시 기존 평화전망대와의 차별성 부족으로 수요 확보에 한계가 있음.
 - 고성 통일전망대의 경우 연간 5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나, 인근에 조성된 DMZ 박물관이 통일전망대 관광객 대비 27%(연간 14만명)의 낮은 방문 특성을 보임.

③ 집행 가능성 및 효과 기대성

■ 운영 가능성

- 민통선 내부 지역의 특성과 마을을 재현하는 부지 개발사업의 특성 상 지속적인 유지관리비 부담이 예상되며, 시설 개발을 통해 수익원 확보가 어려울 경우 군의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됨.

■ 사업 실현 가능성

- 호국역사 스토리 탐방로 사업은 기존 계획상 2012~2020년 사업으로 계획 기간이 경과되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 과거 마을의 대한 재현 및 고증 등의 요소가 필요한 사업으로 이에 대한 사전 작업의 장기화가 예상되며, 추진 시 이에 대한 조속한 조치 및 준비가 필요함.

■ 사업의 효과성

- 연간 20만명의 관광객이 평화전망대를 찾지만 단순히 북한을 한번 보고 가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이 없고, 음식점 등 편의시설이 없어 관광객이 불편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산이포 마을 재현 사업으로 사업 변경됨.
- 그러나 입지적 제약성 및 콘텐츠의 차별성 부족으로 대규모 관광객 유발 효과는 작을 것으로 판단되며, 필요 시 면적이 개발 보다는 민통선 안보관광코스의 신규 자원을 발굴하여 선형으로 새롭게 네트워크하는 방식으로 세부 사업 변경이 필요함.

제3절 월미관광특구

월미관광특구 진흥계획 추진실적 및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제6차 권역계획에 정비·보완 방안을 제시함.

1. 평가 개요

- 월미관광특구 진흥계획사업에 대한 평가기준은 관광특구 평가지표에 기반하여 관광특구 지정 요건, 진흥계획 추진실적, 파급효과로 구성함.

<표 II-21> 월미관광특구 평가지표

대항목	중항목	소항목
관광특구 지정 요건	외국인관광객 수	• 외국인관광객 수 적합 여부
	관광시설현황	• 관광시설 구비기준 적합 여부
	토지이용현황	• 비관광활동 면적 비율 10% 초과 여부
	지구분리현황	• 동일 관광특구의 2개 이상 지구분리 여부
진흥계획 추진실적	관광편의시설 개선 실적	• 공공편의시설, 관광안내시설 등 관광편의시설 개선 실적
	축제행사 개최계획	• 외국인관광객을 위한 축제·행사 개최 횟수
	홍보마케팅 추진실적	•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 홍보·마케팅 실적
	제도개선실적	•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 수행 실적
	연계관광코스 개발 현황	• 연계관광코스 개발 등 연계활성화를 위한 노력
	관광환경개선 실적	• 관광질서 및 관광서비스 개선 노력
	불법행위 자발적 근절 노력	• 민간협의회 등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불법영업 행위 및 불편 행위에 대한 자발적 근절 노력
	외국인관광객 불만처리 실적	• 외국인관광객 불만사례 발생 빈도 및 처리 횟수
	관광시설 종사원 교육 실적	• 관광특구 내 근무하는 종사원에 대한 교육 실적
	관광상품 개발 실적	• 토산품 등 관광상품 개발 실적
파급효과	외국인관광객 수	• 연도별 외국인관광객 증감율
	관광수입	• 연도별 관광수입 증감율
	외국인관광객 만족도	• 부문별 외국인관광객 만족도 조사(숙박, 교통, 음식, 문화, 치안, 위생, 청결, 서비스, 요금, 관광시설, 관광활동 등)
	관광고용	• 해당 지역 내 관광인력 고용 증감율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3),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 및 집행 상황 평가 등 지침

2. 평가 결과³⁾

(1) 관광특구 지정 요건

■ 외국인관광객 수

- 월미관광특구 방문 외국인관광객 수는 부침을 보이나 2014년 기준 469,363명 수준으로 관광특구 지정 기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관광진흥법 제70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8조에서는 지역내 최근 1년간 외국인관광객 수가 10만명 이상일 때, 관광특구로 지정하도록 규정
- 2015년은 메르스 여파 등으로 외국인관광객 방문이 일시적으로 급감하여 11월 기준 239,946명으로 집계

<표 II-22> 월미관광특구 연도별 외국인관광객 수

(단위 : 명)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1월
외국인관광객 수	349,264	363,514	357,631	469,363	239,946

자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DB 및 관광안내소, 관광지점(문화시설, 박물관, 유람선 등), 숙박업소, 환승투어, 국제여객터미널 등 이용객 현황

■ 관광시설현황

- 특구내 시설은 2015년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14종류, 337개가 설치·운영 중이며, 시설면적 비율은 전체 특구 면적 3,000,898.5㎡의 30.97%(929,486.9㎡)로 특구 지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
- 특구내 시설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1(관광특구 지정요건의 세부기준)에 제시되어 있는 공공편익시설, 관광안내시설, 숙박시설, 휴양·오락시설, 접객시설, 상가시설을 기준으로 하며, 시설별 1종류 이상의 다양성과 관광객 이용 충분성을 평가
- 단, 도시관광 기능의 월미관광특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월미공원, 월미친수공간, 연안부두해양광장의 휴양·오락시설을 포함하여 산정
- 구체적으로 공공편익시설은 4종류의 250개소(257,641.0㎡), 숙박시설은 1개 종류의 18개소(78,763.8㎡), 휴양·문화시설은 4종류의 27개소(558,341.1㎡), 접객시설은 3종류의 36개소(8,432.1㎡), 지원시설은 2종류의 6개소(26,308.9㎡)가 설치·운영
- 시설 종류 측면에서는 다소 부족하나, 월미도 문화의거리 확장사업, 연안부두 해양광장내 전망대, 4D 영상관, 유람선, 커피전문점, 지하주차장이 조성되는 등 시설 편의성 개선 노력

3) 월미관광특구 진흥사업 평가는 제5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기간 진행된 인천광역시(각년도)의 월미관광특구 평가결과 보고(2012~2015)를 바탕으로 작성함. 단, 월미관광특구 평가결과 보고는 2015년 11월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통계 자료 해석시 주의할 필요가 있음.

이 지속되고 있고, 공간 내 시설이 집약되어 있어 특구의 기능으로 적합한 것으로 평가됨.

■ 토지이용현황

- 월미관광특구내 토지이용현황은 토지용도별 성격에 따라 관광활동 관련 지역과 관광활동 비관련 지역으로 구분하여 평가함.
- 관련하여 문화관광부(2008)에서는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일반·준주거)·상업지역·녹지지역(자연녹지)·공업지역(준공업), 관리지역 중 계획관리, 자연보전지역 중 집단시설지구 등을 관광활동 관련 지역으로 구분



자료 : 문화관광부(2008), 관광특구 평가 및 개선방안

【그림 II-7】 관광활동 관련 및 비관련 용도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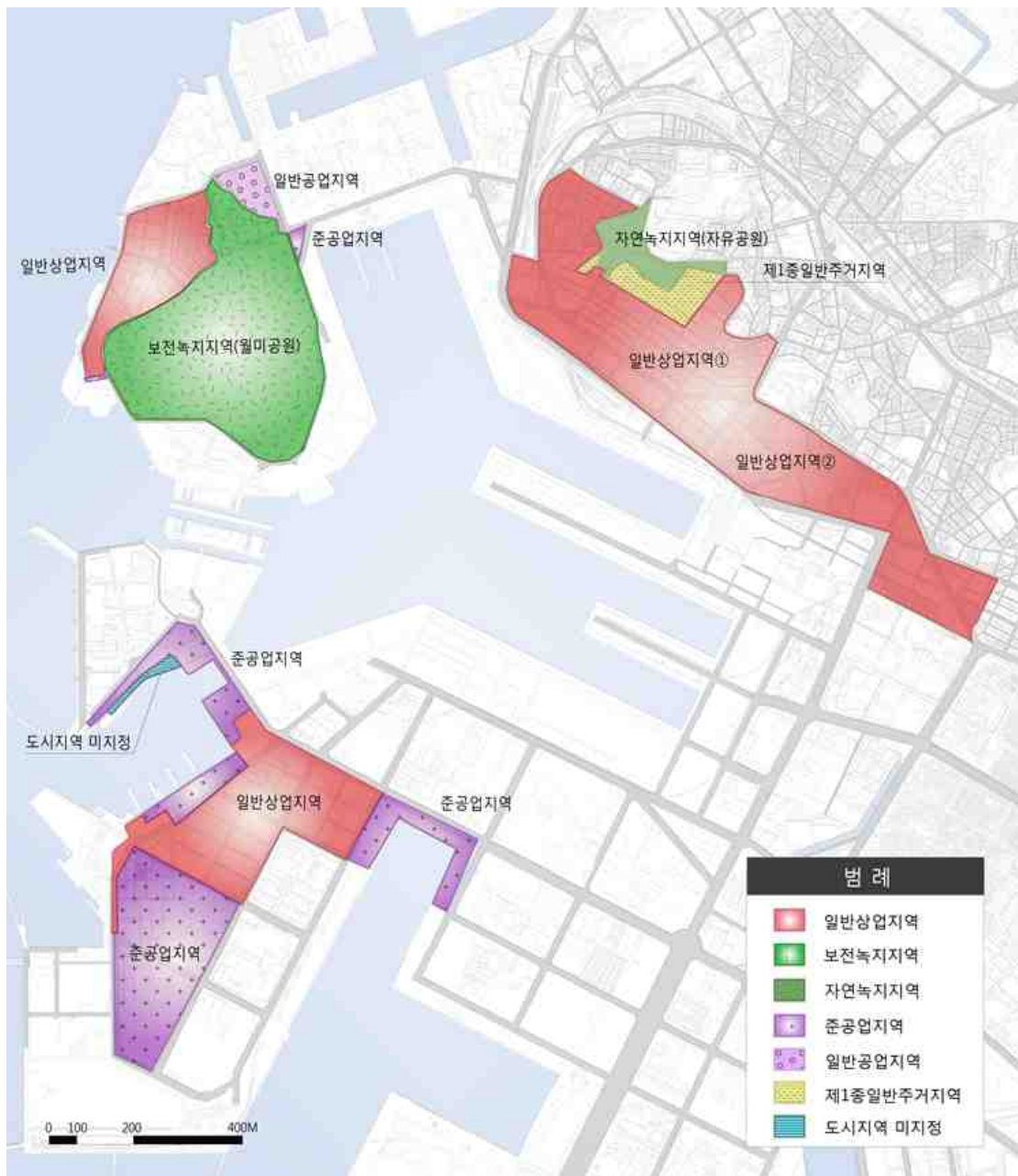
- 월미관광특구의 용도지역별 토지이용현황은 상업 1,470,290.5㎡, 일반주거 174,889㎡, 일반공업 50,120㎡, 항만(준공업) 602,179㎡, 보전녹지 564,906㎡, 자연녹지 138,514㎡ 등이며, 이때 관광활동 비관련 지역 토지 비율은 토지 비율은 전체 특구 면적 3,000,898.5㎡의 3.5%(105,239.8㎡) 수준으로 특구 지정요건 기준 매우 우수하게 나타남.
 - 녹지지역에 해당하는 월미공원(509,786.2㎡)의 경우 도시자연공원으로 구성되어 실제 관광 기능으로 활용되고 있어 관광활동 비관련 지역 토지 면적 비율에서 제외⁴⁾
 - 관광진흥법 제70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8조에서는 임야·농지·공업용지 또는 택지 등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비율이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
- * 관광특구 평가기준 : 5점 91% 이상, 4점 81-90%, 3점 71-80%, 2점 61-70%, 1점 60% 이하

<표 II-23> 월미관광특구 토지이용현황

(단위 : ㎡)

구분	합계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일반주거	일반공업	준공업(항만)	보전녹지	자연녹지
면적	3,000,898.5	1,470,290.5	174,889	50,120	602,179	564,906	138,514

4) 보전녹지 중 월미공원 지구의 관광활동 지역 판단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자원과-1028(2009. 3. 17) 질의 회신에 따르면, 월미공원은 보전녹지이나 도시자연공원으로 구성되어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할 뿐 아니라 외국인을 위한 관광공간으로 기능 할 수 있으므로 관광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림 11-8】 월미관광특구 용도지역 현황도

■ 지구분리현황

- 월미관광특구는 개항장권·월미도권, 연안부두권으로 3개 권역의 2개 지구로 분리되어 있으며, 은하레일, 투어버스, 자전거도로 및 해안둘레길(계획) 조성을 통해 권역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있음.
- 월미관광특구 관광객 방문패턴 및 인지성을 파악한 결과, 개항장권과 월미도권을 연계하여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일 권역으로 인지하고 있어 개항장권·월미도권과 연안부두권 2개 지구 분리는 적합하다고 판단됨.⁵⁾

5) 인천광역시 중구(2011)에서 진행한 월미관광특구 진흥 5개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의 설문조사 결과를 참조하여 작성함

- 개항장권 방문객의 월미도권 방문율은 72.3%, 월미도권 방문객의 개항장권 방문율은 66.4%로 연계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
- 개항장 방문객의 64.0%가 월미도권을, 월미도권의 방문객 56.6%가 개항장을 동일관광지로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안부두권을 동일관광지로 인식하는 비율(각각 53.9%, 49.3%)은 다소 낮게 조사
- 따라서 개항장권과 월미도권, 연안부두권 지구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관광객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중교통 개선이 필요함.
- 지구간 연계성 강화 방안으로는 연안부두~월미도간 유람선 및 여객선 운행 등이 검토 가능

(2) 진흥계획 추진실적

■ 관광편의시설 개선 실적

- 특구내 시설물 하자점검은 상·하반기에 실시하고, 하자보수 관리대장을 통해 관리하며, 관광시설물 및 홍보시설물은 수시 점검을 통해 보수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구내 문화 및 관광시설은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 조례」에 따라 공단에 위탁하여 유지·관리
- 관광숙박업과 여행업은 분기별로 시설물 관리상태 및 관광진흥법상 등록기준 적합 여부 등을 점검하며, 유원시설업과 문화제는 설비기준 적합 여부와 방재시설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음.
 - 기타 특정관리대상으로 지정된 관광시설 건축물은 분기별로 전분야를 점검
- 특구내 관광안내소, 화장실, 재래시장, 쉼터(공원), 공공시설 등 공공편의시설 및 기반시설 유지·관리와 정비, 관광안내표지판, 방향안내판, 관광홍보시설물, 관광시설(포토존, 홍보아치, 벽화) 등 관광안내시설 정비·설치 등 편의시설 개선의 노력을 진행함.
 - 공공편의시설 및 기반시설 유지·관리와 정비 사업은 월드커뮤니티센터 유지·관리, 월미도 및 연안부두 수경시설 조성, 신포동특화거리 야시장 운영, 중구 뷰티 상품판매점 운영 등 21건 진행
 - 관광안내시설 정비·설치 사업은 차이나타운 제4패루 설치, 동화마을 홍보조형물 및 벽화 설치, 삼국지벽화거리 벽화패널 추가 설치, 차이나타운 내 조형물 정비 등 20건 추진
- 또한, 관광안내소, 월드커뮤니티센터, 신포국제시장지원센터 등 관광편의시설을 운영하고, 중구 투어 코디네이터 및 인천문화관광해설사 등 관광안내시스템을 운영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함.

- 월드커뮤니티센터는 특구 관광자원 안내 및 휴게공간 기능으로 연중 운영되며, 신포국제시장 지원센터는 상점 홍보 및 컨설팅 기능 수행
- 중구내 투어 코디네이터는 14명이 활동하는 가운데 20,170명(370회)이 이용하였으며, 인천문화관광해설사는 57명이 활동하며 홍보물 배부 및 도보관광해설 진행
- 그 외,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성하고, 박물관별 통합발권기 1개소를 배치하는 등 관광객의 시설이용 편의성을 제고하였으며, 특구 일원의 관광자원을 연계·순환하는 인천시티투어 버스를 운영하고 있음.
- 이처럼 특구내 관광숙박시설, 공공편의시설, 관광안내시설 등 관광편의시설 개선 노력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리·운영 실태는 양호하게 나타남.

■ 축제행사 개최계획

- 특구내 월미도, 자유공원, 연안부두 해양광장, 신포동 특화거리 일원을 중심으로 내·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축제가 2015년 기준 15회 개최되었으며,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주민 참여형 축제로의 발전 의지가 보임.
- 자유공원 문화관광축제, 월미관광특구 불꽃축제, 인천상륙작전 월미축제, 인천중국의날 축제 등
- 또한, 한국근대문학관, 한중문화관, 화교역사관, 인천개항박물관 등 개항장권을 중심으로 근대문학, 한국화교, 인천과 중구, 개항장 등 다양한 주제의 전시가 2015년 기준 14건 개최됨.
- 그러나, 특구에서 개최되고 있는 축제 및 이벤트는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대표 축제가 부재하다는 한계가 있어 기존 소규모 축제를 통합하여 대표축제를 개최하고,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홍보마케팅 추진실적

- 내·외국인의 월미관광특구 유치를 위해 관광홍보물 및 홍보동영상을 제작하고 연중 배포하고 있으며,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박람회 및 관광전 등의 홍보마케팅 사업을 추진함.
- 관광홍보물은 관광홍보책자, 통합관광안내지도, 월미관광특구리플릿 등 8종을 약 16만부 제작하여 문화시설 및 관광안내소, 호텔, 공항 등에 비치하고, 월미관광특구 권역별 테마 홍보 영상 및 차이나타운, 동화마을의 관광홍보동영상을 제작
- 또한, 방송, 신문, 잡지, 인터넷 등을 통해 각종 축제 및 공연 등을 홍보하고, 지하철 서울역과 인천역에 대형 광고 및 역명표지판 등을 설치하였으며, 인천관광공사 홈페이지 및 인천국제공항 홈페이지에 월미관광특구가 포함된 관광코스 및 환승투어 관광상품 게시

- 서울 COEX에서 개최된 내나라 여행박람회 및 서울여행사진전, 부산 BEXCO에서 개최된 부산국제관광전에서 월미관광특구를 홍보하는 등 노력 전개
- 한편, 외래관광수요를 고려하여 특구의 장점과 관광콘텐츠를 효율적으로 홍보·마케팅할 수 있는 유통망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제도 개선 실적

- 특구내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2014.4.1.) 및 월미관광특구 진흥을 위한 경관조성사업 지원 조례를 개정(2015.4.13.)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개정을 통해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기준 5,634명 대상 27,000천원 지원
- 또한, 경관조성사업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경관조성사업 특화거리를 지정(2015.4.)하고 43건에 대해 430,000천원을 지원
- 또한,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권장시설 및 준권장시설의 근대건축물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보조금 및 용자를 지원하는 등 활성화를 촉진함.
- 그 외, 신포동특화거리를 옥외광고물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하여 간판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문화재보존지역 범위 등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의 노력을 진행함.
- 특구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 수행 평가는 6점 중 5.22~5.44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양호하게 평가됨.

■ 연계관광코스 개발 현황

- 월미관광특구 연계관광코스는 인천환승투어, 인천시티투어, 근대역사문화회랑, 인천추천 1박2일 관광코스, 인천추천 일출일몰 10선 등이 개발되어 운영 중에 있음.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 환승 관광객을 대상으로 인천공항~월미공원~신포시장을 경유하는 관광코스를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기준 7,188명 이용
-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인천시티투어는 인천역~이민사박물관~갑문~인천대교를 경유하며, 2015년 8,942명 이용
- 그 외, 근대역사문화회랑이 인천역~차이나타운~박물관~신포시장~자유공원을 연계하여 조성되었으며, 인천관광공사에서 개발한 인천추천 1박 2일 관광코스(맛있는 공연 ‘비밥’과 함께하는 역사여행, 중구의 맛과 멋을 찾아서)와 인천추천 일출일몰 10선(월미도

문화의 거리, 연안부두 데크)에 선정

- 연계관광코스는 단순 공간의 연계가 아닌 권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하고, 인천관광공사와의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개발·홍보할 필요가 있음.

■ 관광환경개선 실적

- 특구내 범죄예방 계획 및 바가지요금, 호객행위 등에 대한 근절 대책을 통해 관광질서를 개선하고, 위생(청결), 친절 등 서비스 개선 노력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주요 관광질서 개선 사업으로는 호객(청객)행위 근절 대책 및 주말 근무조를 운영, 관광질서 확립을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각종 관광시설업 안전점검, 외식문화개선을 위한 어린이 뮤지컬 공연(6회) 및 컨설팅(14개소) 등 10개 사업 진행
 - 주요 관광서비스 개선 사업으로는 관광맞춤형 고객만족 위생관리, 음식문화 개선 컨설팅 및 활동, 특색음식거리 활성화 사업 등 12개 사업 진행

■ 불법행위 자발적 근절 노력

-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불법영업 행위 및 불편 행위에 대해 주민, 경찰, 기관(단체) 및 민간기업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불법 주정차 근절을 노력함.
- 또한, 소비자 51명이 참여하는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을 운영하고, 주민협의회가 자발적으로 송월동 동화마을 불법주정차 및 쓰레기투기 근절 활동에 참여하며, 식품접객업소 자율 점검제를 1차 자율점검과 2차 확인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함.
- 불법행위 근절 노력은 지역주민과 시민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민 의식개혁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관광객 불만처리 실적

- 관광객의 불만처리를 위해 유선 및 오프라인, 홈페이지 관광불편신고 게시판 및 전자민원 등을 통해 관광불편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 7건, 2014년 26건, 2015년 10건이 접수되어 처리한 바 있음.
- 주요 불만사례로는 위생상태 및 서비스(2건), 시설 안전문제(3건) 등 관광편의시설 문제와 가격 조정(2건) 등 관광 환경 문제, 문화해설 음성안내기 설치, 한시(韓時)거리 조성 등 특구진흥제안(3건)이며, 그 외 관광안내책자 자료 요청 및 관광지 안내(39건)로 나타남.⁶⁾
- 접수된 불만사례는 현장 점검 실시 및 특구진흥계획 수립 시 참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6) 불만사례 발생빈도 건수는 사례별 빈도수로 관광불편신고센터 처리 접수 건수 합계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관광시설 종사원 교육 실적

- 월미관광특구내 공공시설 종사원 교육은 2015년 기준 박물관 및 미술관 직원 서비스교육 3회, 월드커뮤니티센터의 투어코디네이터 보수교육 1회(50시간 이상), 관광안내소 직원의 직무·코티스·환대 교육 2회, 문화체험교실 강사 18명을 대상으로 1회 실시됨.
- 또한, 관광숙박업, 여행업, 유원시설업 등 관광종사자를 대상으로 환대서비스 실천 교육이 2회 시행되었으며, 2,145개 위생업소(일반음식점, 숙박업) 대상 위생교육 및 1,261개소 대상 친절 및 환대서비스 교육이 수시로 진행되고 있음.
- 한편, 관광시설 종사원 교육은 의무 교육 수준으로 진행된다는 한계가 있어 서비스 교육 체계화 및 지속화가 요구됨.

■ 관광상품 개발 실적

- 특구내 내·외국인 유치를 위해 개발된 관광상품으로는 중구 스탬프 투어, 맛있는 공연 ‘비밥’ 과 함께하는 역사여행, 중구의 맛과 멋을 찾아서, 트리플 투어 당일 여행 등 8개가 있으며, 인천광역시(인천관광공사), 중구, 현대유람선, 인천경제통상진흥원 등이 주체가 되어 운영 중임.
- 관광상품은 차이나타운, 자유공원, 동화마을, 아트플랫폼 등 개항장권과 월미도 문화의 거리 등 월미도권, 연안부두, 인천종합어시장 등 연안부두권의 주요 관광지점과 번버벌 퍼포먼스 ‘비밥(BIBAP)’을 연계하여 개발됨.
 - 특히, 한식을 주제로 하는 ‘비밥(BIBAP)’ 공연 관람객 수는 2015년 11월 기준 44,242명으로, 이중 외국인 관람객은 23,150명으로 집계
- 관련하여 중구는 신포국제시장, 휴띠끄, 월미공원, 비밥 공연 등 특구 내 주요 관광지에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지원 및 입장료 할인, 무료 안내 등을 제공하고 있음.
- 특구내 각 권역은 역사·문화, 해양친수 등 다양한 관광자원이 산재하여 있어 잠재력이 높게 평가되고 있으나, 지역 특성을 고려한 관광상품 및 토산품, 기념품 개발은 부족한 실정임.
 - 특히, 개항장 일대의 박물관 및 근대역사문화회관 등은 관리 운영의 활성화 필요
- 따라서 자원의 고유성을 높여 차별적인 매력을 창출하고, 팸투어와 관광진흥정책 확대를 통해 여행사 주도의 관광상품이 개발·운영되도록 지원하고, 특구내 소재한 공방을 중심으로 토산품 및 기념품 개발을 육성할 필요가 있음.

- 인천아트플랫폼, 한국근대문학관 등 특구내 융합 가능한 자원을 활용한 창조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스토리텔링을 통해 관광 콘텐츠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작업 필요

<표 11-24> 월미관광특구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현황

구분	주요 내용	운영 주체
중구 스탬프 투어	• 중구 관광지 10개소를 방문하여 도장 획득시 기념품 증정	중구
맛있는 공연 '비밥'과 함께하는 역사여행	• 1일차 : 동화마을~차이나타운~자유공원~아트플랫폼~신포시장 • 2일차 : 월미도~놀이공원~이민사박물관~인천종합어시장~비밥공연	인천광역시 (인천관광공사)
중구의 맛과 멋을 찾아서	• 1일차 : 무의도~연안부두(해수탕)~인천종합어시장~비밥공연 • 2일차 : 문화지구~차이나타운(짜장면)~동화마을~월미도	인천광역시 (인천관광공사)
인천추천 일출일몰 10선	• 월미도 문화의 거리, 연안부두 해양광장 데크	인천광역시 (인천관광공사)
트리플 투어 당일 여행 (팔미도 여행)	• 차이나타운~연안부두(중식)~유람선~경인아라뱃길	현대유람선
공동브랜드 「어울」 개발	• 118개 업체 중 10개 24종 어울 브랜드 개발 - 정성을 담다, 조상의 지혜를 배우다, 한국적 이미지를 담다 • 29개사 1,000여개 제품 판매	인천경제통상 진흥원(휴띠II)
넌버벌 퍼포먼스 비밥(BIBAP) 공연	• 한식을 주제로 하는 넌버벌 퍼포먼스(2015년, 313회 공연) - 2015년 11월, 260회 공연, 관람객 44,242명(외국인 23,150명)	인천광역시 ·중구
맛있는 공연 BIBAP과 함께하는 인천 중구 1일 여행	• 비밥관람~차이나타운(중식)~동화마을~개항장 문화지구~월미도 • 동화마을~차이나타운(중식)~개항장 문화지구~비밥관람~월미도	인천광역시 ·중구

(3) 파급효과

■ 외국인관광객 증감율

- 월미관광특구 방문 외국인특구내 연도별 외국인관광객 증감율은 2014년 기준 469,363명으로 2013년 대비 31.2% 증가함.
- 2015년은 메르스 여파 등으로 인한 외국인관광객 수 급감으로 전년대비 48.9% 감소하였으나,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외국인관광객 수는 연평균 10.4% 증가하여 잠재력이 확인됨.
- 향후 특구내 단체 수용가능한 숙박 및 식음시설 조성,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운영 및 홍보·마케팅을 통해 적극적인 외국인관광객 유치가 필요함.

<표 11-25> 월미관광특구 연도별 외국인관광객 추이

(단위 : 명,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1월
외국인 관광객 수	349,264	363,514	357,631	469,363	239,946
증감율	-	4.1	-1.6	31.2	-48.9

자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DB 및 관광안내소, 관광지점(문화시설, 박물관, 유람선 등), 숙박업소, 환승투어, 국제여객터미널 등 이용객 현황

■ 관광수입

- 월미관광특구 관광 수입은 특구내 운영 업체매출액과 인천중국의날 등 축제소득액, 문화시설 등 유료시설 이용실적을 포함하여 2014년 기준 275.8억원의 수입을 창출함.
 - 2015년 11월 기준 관광수입은 186.8억원으로 전년대비 32.3% 감소하였으나 이는 메르스 등의 여파로 전반적 관광객 수 감소에 의해 업체매출액이 동반 감소한데 따른 영향으로 파악
- 2014년의 경우, 업체매출액과 문화시설 등 이용실적이 추가되어 전년 대비 98.0% 증가율을 보이며, 높은 파급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됨.
 - 특구 평가 결과, 관광수입 증감율은 2014년 기준 9.88/10점으로 양호하게 평가

<표 II-26> 월미관광특구 관광 수입

(단위 : 억원,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1월	비고
업체매출액	-	-	210.2	149.9	• 차이나타운내 상점 월 매출액 설문조사 추정치, 휴띠크, 유원시설 등 레저시설 이용실적
축제소득액	77.0	136.0	55.7	20.0	• 2015년 인천중국의 날 총 방문객 5만명/1인당 지출액 4만원
문화시설 등	-	3.3	9.9	16.9	• 유료시설(주차장, 박물관 등) 이용 실적
합계	77.0	139.3	275.8	186.8	-
증감율	-	80.9	98.0	-32.3	-

■ 외국인관광객 만족도

- 월미관광특구 외국인관광객 만족도 조사 결과 2015년 기준 98.0%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나 2013년(92.8%) 및 2014년(93.5%) 대비 높은 만족도를 나타냄.
 - 2015년 중국관광객 49명, 영어권관광객 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만족 51.0%, 보통 47.0%, 불만족 2.0%로 조사
- 구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부분은 박물관, 전시관 등 관광시설(53.2%), 관광질서 및 서비스(14.9%), 축제·행사·이벤트(8.5%), 살거리 및 먹거리(8.5%), 주차장 및 화장실(6.3%), 휴게공간(4.3%), 기타(4.3%) 순으로 분석됨.
 - 불만족 사항은 주차장 및 화장실(23.5%), 휴게공간(17.6%), 박물관, 전시관 등 관광시설(7.8%), 축제·행사·이벤트(5.9%), 기타(5.9%), 살거리 및 먹거리(3.9%) 순으로 분석
- 따라서 외국인관광객이 선호하는 관광시설 및 콘텐츠를 보완하고, 주차장 및 화장실, 관광객 휴게공간 등 편의시설의 정비·보완, 축제·행사·이벤트 및 살거리·먹거리의 차별화를 통해 외국인관광객 만족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표 II-27> 월미관광특구 외국인관광객 만족도

(단위 :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만족도	60.0	92.8	93.5	98.0

주 : 관광안내소(인천역, 월미도, 여객터미널), 한중문화관, 월드커뮤니티센터 등 방문 외국인을 대상으로 2015년 11월 16일부터 30일까지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중국인 관광객 49명, 영어권 관광객 18명 총 51부를 분석

자료 : 인천광역시 중구(2015), 월미관광특구 외국인관광객 만족도 설문조사

■ 관광고용

- 특구내 관광사업체 수는 2014년 기준 97개로 관광안내소 7개, 관광호텔 15개, 관광유람선업 4개, 관광식당 30개,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4개, 외국인전용기념품판매업 17개, 여행업 20개로 나타남.
- 2015년 관광사업체 수는 86개로 감소하였으나 이는 외국인 전용기념품판매업소 수의 미집계로 인해 발생한 것이며, 관광호텔 3개소, 관광식당 1개소, 여행업 2개소 등 관광사업체는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

<표 II-28> 월미관광특구 관광사업체 추이

(단위 : 개)

구분	합계	관광안내소	관광호텔	관광유람선업	관광식당	외국인 전용유흥 음식점	외국인 전용기념품 판매업	여행업
2012년	82	5	10	4	22	3	13	25
2013년	93	7	12	3	27	4	16	24
2014년	97	7	15	4	30	4	17	20
2015년	86	7	18	4	31	4	-	22

- 한편, 특구내 관광사업체 신규일자리 고용자 수는 2015년 기준 36명으로 전년대비 24.1% 증가율을 보이는 등 신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이 발생하고 있음.
- 신규일자리는 중식당 2명, 휴게음식점 12명, 일반음식점종사자 15명, 제과점 2명, 숙박시설 5명 등

<표 II-29> 월미관광특구 관광사업체 신규일자리 고용 추이

단위 : 명,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비고
신규 일자리 고용자 수	24	29	36	중식당 2명, 휴게음식점 12명, 일반음식점종사자 15명, 제과점 2명, 숙박시설 5명
증감율	-	20.8	24.1	

주 : 신포동권역 및 차이나타운 내 음식점, 카페, 공공시설, 상점 등 사업체 및 숙박시설 대상 인력 고용 증감율

- 특구내 관광사업체를 중심으로 관광상품 개발·운영 지원을 통해 내수시장 확대와 신규 고용창출을 기대할 수 있음.

(4) 종합평가 및 개선 방향

■ 관광특구 지정 요건

- 월미관광특구의 외국인관광객 수, 관광시설현황, 토지이용현황 및 지구분리현황은 관광특구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관광시설의 경우 법률상 지정 기준은 충족하고 있으나, 시설 종류 및 개수 측면에서는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어 지속적인 개선의 노력이 요구됨.
- 한편, 개항장권과 월미도권은 관광객 연계 방문 및 동일 관광권역 인지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연안부두권의 관광 연계성 및 구역 일체성은 비교적 낮게 나타나 이에 대한 강화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진흥계획 추진실적

- 특구내 관광편의시설 개선 및 제도 개선을 통한 관광객 유치 등의 노력이 추진되고 있는 반면, 관광상품 및 연계관광코스 개발, 홍보마케팅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은 비교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개발된 관광상품 및 연계관광코스는 차이나타운, 개항장 문화지구, 월미도, 연안부두 등 특구 내 특정 장소를 연결하여 단순 관람하는 형태로 국내·외 관광객 방문 유도에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지역 자원에 기반한 창의적 프로그램을 기획·홍보하고, 주변 지역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산발적으로 추진되는 소규모 축제를 통합하여 대형화하고, 관광객이 집중되는 시기를 중심으로 개최하여 관광객 방문 동기 및 만족도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지자체 주도로 관광질서 및 서비스 개선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주민, 경찰, 기관(단체) 및 민간기업으로 구성된 네트워크의 자발적인 불법행위 근절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됨.
- 향후 지역주민과 관광시설 종사원을 중심으로 관광 서비스 및 관광질서 개선에 대한 교육을 지속해나갈 필요가 있음.

■ 파급효과

- 특구내 외국인관광객 증감을 및 관광수입, 관광고용 등 파급효과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는 관광사업체 중심의 관광상품 개발·운영 지원을 통해 향후 확대될 수 있음.
- 또한, 외국인관광객들이 만족도를 느끼는 박물관, 전시관 등 관광시설을 활용하여 콘텐츠 보완·운영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의 매력을 반영한 축제·행사·이벤트 개최 및 살거리·먹거리의 차별화를 통해 만족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즉, 특구내 역사·문화, 해양 등 보유 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축제·행사·이벤트, 음식, 토산품 및 기념품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은 관광객 방문 유도 및 만족도 제고, 관광수입 및 관광고용 확대에 이어질 것으로 판단됨.

■ 종합 및 개선방향

- 월미관광특구는 특구 지정 요건에 부합하고, 시설 및 제도 개선 등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평가됨.
- 지자체의 관광특구 진흥 의지와 안정적 재정 기반을 토대로 뚜렷한 장소성과 다양한 문화자원, 인공구조물, 자연이 조화되어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매력이 강점임.
- 월미관광특구는 인천국제공항 및 항만과 인접하여 외국인 관광객, 환승 관광객 등 잠재 시장을 보유하고 있어, 기존 서울, 제주 중심의 외국인관광객 문제를 해결하는 관광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현재 월미관광특구 사업은 시설 조성 등 하드웨어 측면을 중심으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어 관광상품 및 기념품, 축제·이벤트 등 권역별 자원 특성에 기반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지원·육성하고, 홍보·마케팅을 강화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개항기 근대역사·문화, 해양자원 등 특구내 보유 자원에 기반하여 기존 시설 및 공간을 창조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 또한, 지역사회 내 합의된 정책 추진을 위해 지역 상인들과 주민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 의체를 중심으로 개방적이고 창의적인 논의를 추진해야 함.

제4절 유사 관광자원 개발사업 : 도서특성화 사업

도서특성화 사업을 사업 기획성, 집행 효율성, 운영 가능성 등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향후 효과적인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추진 방향을 모색함.

1. 평가 개요

■ 평가 기준

- ‘제6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지침’은 행정자치부 등 타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사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현황을 분석·평가하도록 제시하고 있으며, 평가기준 및 항목, 평가방법은 권역내 포함된 유사 관광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하도록 함.
- 이에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평화생태마을 조성 사업 등 도서특성화 사업의 현황 분석 및 평가를 진행함.
 - 특수상황지역은 도서개발촉진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 『지정도서』 372개 중 성장촉진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185개 도서로 인천권은 중구 2개소, 강화군 8개소, 옹진군 23개소가 해당
- 평가는 제5차 계획기간 동안 진행된 도서특성화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유사 관광개발사업인 문화 및 생태·녹색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기준을 참고하여 사업 기획성, 집행 효율성, 운영 가능성을 평가함.

<표 II-30> 평가 기준

평가 기준		평가 항목
사업 기획성	목표 부합성	• 상위 계획과의 부합성과 일관성
	행정절차 및 사업계획	• 사전 행정절차 이행 점검 • 사업계획 적정성
	사업 특화성	• 콘셉트의 독창성과 매력성 • 미래 관광 활동 및 관광 행태·트렌드 반영여부
집행 효율성	사업 진척률	• 예산액 대비 진행률 • 사업기간 준수 여부
	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체계 구성의 효율성 및 역할 분담의 명확성 • 사업리스크 관리 역량
운영 가능성	관리·운영의 적절성	• 사업 추진에 따른 관리·운영 계획 준비도 • 관리 운영 방식, 주체, 운영 프로그램의 적정성
	지속발전 가능성	• 자생추진 능력여부 •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가능 정도 • 관광객 유치 효과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5.11), 지역관광개발사업 기획평가

■ 평가 대상 사업

○ 제5차 권역기간(2012~2016년) 추진된 인천권 도서특성화 사업은 찾아가고 싶은 섬 6개소, 평화 생태마을 3개소, 총 9개소임.

- 찾아가고 싶은 섬(6개소) : 강화군 교동도, 불음도, 옹진군 대이작도, 덕적도, 승봉도, 중구 소무의도
- 평화 생태마을(3개소) : 강화군 국화리, 옹진군 장봉도, 백령도

○ 단, 중구 소무의도, 옹진군 백령도는 기본계획 수립 및 주민역량 강화 등 사업 준비 단계임을 감안하여 집행 효율성 및 운영 가능성 평가에서는 제외함.

<표 II-31> 도서특성화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선정연도	사업기간	사업비	주요 사업 내용
찾아가고 싶은 섬	교동도 근대문화 공간 조성사업	2010	2011.1.1.~ 2014.12.31.	2,500	• 유배지 복원, 진입로 및 주차장 조성, 농산물 주말 장터 운영 등
	이작 바다생태마을 조성사업	2010	2011.1.1.~ 2014.12.31.	2,500	• 해안탐방로 개설, 해안산책로 및 해안둘 레길 개설, 해양생태관 조성 등
	불음도 저어새 생태마을 조성사업	2011	2012.1.1.~ 2015.12.31.	2,500	• 조류 조망 전망대 설치, 산책로 및 해당화 군락지 조성, 해안생태탐방로 설치 등
	나그네의 섬, 덕적도 조성사업	2011	2012.1.1.~ 2015.12.31.	2,500	• 비조봉 정비, 자전거 쉼터, 벚개 호수 공원 조성, 선착장 상징문화공간 조성, 나그네의 섬 농산물 판매장 운영 등
	치유(Healing)의 섬, 승봉도 조성사업	2013	2014.1.1.~ 2017.12.31.	2,500	• 캠핑장 조성, 연꽃체험단지 조성, 삼림 욕 체험장 조성, 교육체험관 조성 등
	춤추는 소무의도 조성사업	2014	2015.1.1.~ 2018.12.31.	2,500	• 마을 브랜드 및 콘텐츠 개발, 마을시장 운영, 마을레스토랑·카페 조성, 마을 텃밭 운영, 여행상품 개발 등
평화 생태마을	이색체험마을, 장봉도 조성사업	2011	2012.1.1.~ 2015.12.31.	2,500	• 해안탐방로 개설, 해안산책로 조성, 옹암 선착장 경관 개선, 해안둘레길 개설 등
	역사문화 스토리텔링 조성사업	2012	2013.1.1.~ 2016.12.31.	2,500	• 농산물 판매장 신축, 마을 순환 등산로 조성, 국정마을 경관 가꾸기 등
	백령 힐링호수마을 조성사업	2015	2016.1.1.~ 2019.12.31.	3,500	• 소나무 옆 호수공원 조성, 소금창고 조성, 민박 프로그램 운영, 향토음식 개발 및 푸드트럭 운영 등(기본계획 수립 중)

자료 : 인천광역시(2016.7.12.), 도서특성화사업 진단 및 활성화 방안 토론회 자료집; 인천광역시 옹진군 내부자료(2016), 각 사업 기본계획 참조 작성

2. 평가 결과

- 찾아가고 싶은 섬 사업 및 평화 생태마을 사업 등 도서특성화 사업의 사업 기획성, 집행 효율성, 운영 가능성을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1) 사업기획성

■ 목표 부합성

- 상위계획 및 개발목표와의 일관성 유지
 - 도서특성화 사업은 상위 계획인 제5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에서 전략2. 해양·도서 및 녹색관광 육성의 세부 과제인 주제가 있는 인천형 명품섬 육성 사업으로 계획된 바 있어 상위 계획 및 개발목표에 부합하고, 일관성 유지
 - 제5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에서 전략2. 해양·도서 및 녹색관광 육성을 위해 주제가 있는 인천형 명품섬 육성 사업으로 교동 문화마을 가꾸기 사업, 이작·승봉 해양생태레저 클러스터 육성, 불음도 저어새 생태마을 및 서도면 친환경에너지섬 조성, 덕적 에코 아일랜드 및 나그네 섬 조성, 장봉도 이색체험마을 및 생태관광의 섬 조성을 계획

■ 행정절차 및 사업계획

- 행정절차 이행여부 및 사업계획 적정성
 - 덕적도, 승봉도, 장봉도는 공모사업 신청 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단위사업별, 연차별 기본 또는 실시설계, 착공 순으로 사업 추진
 - 소무의도, 백령도는 공모사업 선정 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을 재구성
 - ‘주제가 있는 명품섬 육성’이라는 기본 방향은 유지되어 당초 계획과의 정합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



■ 사업 특화성

○ 콘셉트의 독창성과 매력성

- ‘에코’, ‘치유’, ‘힐링’, ‘나그네’ 등 콘셉트에서 타 도서와 차별화를 추구하고 있으나, 콘셉트의 매력성 및 독창성은 다소 낮게 평가

○ 미래 관광 활동 및 관광행태, 트렌드 반영여부

- 둘레길 또는 산책로 정비, 전망대 또는 정자 설치, 선착장 경관 개선 등의 유사 사업 추진
- 이러한 관람 위주의 사업은 관광 트렌드에 대한 부합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관광 활동의 창조성 또는 참여적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 제기

(2) 집행효율성

■ 사업 진척률

○ 예산액 대비 진행률과 사업기간 준수 여부

- 도서특성화 사업은 대체로 사업기간 내에 진행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시설 조성 후 미운영 되는 문제 발생
- 나그네의 섬 덕적도 조성 : 비조봉 정비, 자전거쉼터, 표지판(‘12), 소야 해안산책로, 북리 소류지 및 벗개 호수공원(‘13), 선착장 상징문화공간 조성, 판매장 설치(‘14), 농산물 판매장 보강, 덕적 친환경 에너지 홍보관 건립(‘15)
- 치유의 섬 승봉도 : 캠핑장 조성(‘14), 연꽃체험단지 및 데크로드 조성, 카라반 설치, 건강지압길 등(‘15)
- 이색체험마을 장봉도 조성 : 해안산책로, 정자, 보도블럭, 회전계단, 화장실, 봉화대(‘13), 해안둘레길 조성(‘14), 웅암 선착장 경관개선(소규모 무대 및 건어장 경관 개선), 진달래 군락지 조성 및 꽃배 제작(‘15)
- 역사·문화 스토리텔링 조성사업 : 마을회관 리모델링, 농산물 판매장 신축(‘14), 마을 순환 등산로 조성(‘15), 국정마을 경관 가꾸기, 마을 로고, 지도 제작 등 홍보(‘16)

■ 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체계 구성의 효율성 및 역할 분담의 명확성

- 사업주무부서는 각 군·구 내 관광 관련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도서특성화 사업을 위한 별도의 추진체계는 부재
- 사업주무부서와 지역주민 대표, 인천관광공사 등 유관기관, 전담 자문위원이 포함된 특성화

사업 추진협의체 운영 필요

○ 사업리스크 관리 역량

- 사업은 각 군·구 내 관광 관련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어 사업리스크 관리 역량 부족
- 용진군의 경우, 이작도, 덕적도, 승봉도, 장봉도, 백령도 등 매년 도서특성화 사업에 공모·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해5도 특별지원단이 전담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사업관리역량 보유

(3) 운영가능성

■ 관리·운영의 적절성

- 표적 시장 설정 또는 먼 차원의 관리·운영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관리·운영 주체 및 방식, 운영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홍보방안을 포함한 관리·운영의 적절성이 낮음.
- 특히, 체험관, 관광지 시설, 마을경관 개선 사업 등은 관리·운영 주체의 전문성 부족으로 사업의 지속화가 어려운 실정임.

■ 지속발전 가능성

○ 자생추진 능력여부

- 섬별 탐방로, 전망대 등 기반시설 또는 홍보관 등 체험시설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할 주민조직 부재
- 자생적, 내생적 추진을 위해 관리·운영 주민조직 구성 또는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교육 등 지원 필요

○ 사업의 효과성

- 대다수의 도서특성화 사업이 탐방로 및 산책로 조성, 마을 환경 정비 등 기반 시설 확충을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정주 여건 개선에는 기여하였으나 관광객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은 미흡
- 불음도 저어새, 승봉도 연꽃, 백령도 소금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등 콘텐츠 개발 강화 필요
- 덕적도 나그네의 섬 농산물 판매장, 강화군 교동도 및 국화리는 농수산물 판매장 운영을 통해 가공상품 개발 등 부가가치 창출 및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

(4) 정비·보완 방안

- 도서특성화 사업은 제5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등 상위계획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행정절차에 적합하게 추진됨.
- 사업 추진 종료 대상지에서는 탐방로, 전망대, 홍보관 등 인프라 중심의 사업이 관련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주체의 전문성 부족으로 지속적인 관리·운영 문제가 나타남.
- 사업 추진 초기 단계의 대상지에서는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하는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공모 당시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조직 설립 문제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부진하다는 한계가 있음.
 - 행정자치부는 특성화사업을 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평가에 따라 차등 지원
 - 1단계 사업으로 기본계획 수립, 주민역량 강화, 부지확보, 사업추진체계 확립 등
- 특히, 섬별 도서특성화 사업의 독창성과 관광 매력성이 낮은 한계가 있어 도서특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함.
- 도서특성화 사업 공모를 계획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 계획 및 추진 조직 설립, 관련 교육 등을 지원하여 사업 선정의 가능성 제고 및 선정 후 추진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사업 미선정시, 관광 관련 정부 공모지원 사업과 연계 추진
- 사업 기 추진 지역을 대상으로 관련 커뮤니티 비즈니스 발굴 및 지역주민 역량강화를 지원하여 도서특성화 사업의 성과를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함.



제3장 전략 추진 과제

- 전략1. 융·복합 관광산업 및 창조관광 생태계 육성
- 전략2. 차별적인 관광콘텐츠와 인천 매력 개발
- 전략3. 섬·해양 관광의 체계적 육성
- 전략4. 인천관광 브랜딩 및 마케팅 강화
- 전략5. 관광수용태세 정비 및 관광교류협력 활성화

전략1. 융·복합 관광산업 및 창조관광 생태계 육성⁷⁾

- 아시아 주요 메가도시권의 국제관광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입지 강점을 활용하여 한국관광의 성장과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집객 거점 창출
- 융·복합 관광산업 및 창조관광 생태계 육성을 통한 서비스 산업의 전략적 육성 및 대규모 일자리 창출
- 국제관문시설, 대규모 배후 시장, 경제자유구역의 제도적 기반 등을 활용한 한국 관광 선진화와 질적 성장에 기여하는 동북아 관광중심 도시로 성장

①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

- 숙박·쇼핑·국제회의·카지노·엔터테인먼트 요소 등을 결합한 영종도 복합리조트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동북아의 인천판 라스베이거스 시티로 육성
- 송도컨벤시아 2단계 시설 확장 및 국제회의 복합지구 육성, 스마트 마이스 인프라 조성, 송도 그린 스마트 MICE 시티모델 구현, MICE 유니크 메뉴 확대 및 인천 8대 전략산업과 연계한 인천 대표 MICE 육성
- 의료관광 특화 관광상품 개발, 중국 의료관광 마케팅 거점 육성 등 전략시장 마케팅 강화를 통한 의료관광 산업 육성
- 인천시 뷰티산업 육성과 연계한 뷰티 의료관광 복합단지 설립 및 뷰티산업 융합형 관광 활성화



② 전통 관광산업 고도화

- 호텔, 여행업 등 지역 중소 관광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레벨업 사업 추진, 관광 부문 기업 간·이업종 간 융·복합 협력사업 촉진
- 인천 관광산업 네트워크 촉진을 위한 관광산업 얼라이언스(alliance) 구성 및 관광 부문

7) 제6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의 전략추진과제는 인천 관광마스터플랜(인천광역시·인천발전연구원·인천관광공사, 2015)과 인천 비전 2050(인천광역시, 2016)의 관광 부문 과제와 내용적 일관성을 기함.

혁신 경험을 공유·확산하는 인천관광혁신전 정례화

③ 창조관광 비즈니스 육성 및 관광 창업 허브 도시 인천 육성

- 관광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체계적 육성, 관광 부문 창업 활성화를 위한 인천 관광창업 지원센터 운영
- 인천 창조관광 공모전, 지역 관광 랩(lab) 등을 통한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및 인큐베이팅 추진

④ 관광인력 육성 및 산·관·학 협력 활성화

- 복합리조트, MICE 관련 학과 개설, 국외 관광 대학 유치 등 대규모 인력 수요에 대응하는 관광 부문 인적자원 양성
- 인천 메디컬 아카데미 운영, 관광산업체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서비스 아카데미 운영
- 관광콘텐츠 혁신과 연계한 인천 관광매개자 육성, 인천관광산업 채용박람회 정례화

⑤ 전략산업 및 전통산업 연계 산업관광 육성

- 인천 8대 전략산업 및 제조업 등 전통 산업과 연계한 산업관광 육성
- 산업관광 육성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산업관광 프로그램, 산업체험 뮤지엄 등 추진



전략2. 차별적인 관광콘텐츠와 인천 매력 개발

- 개항 근대역사문화, 강화 한민족역사 등 인천만의 정체성과 차별적인 도시 자산을 활용한 도시관광 경쟁력 강화
- 차별적인 자산 활용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에 의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력 확대와 지역 활성화 촉진
-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가 공간의 체계적 정비로 시민 삶의 질과 행복감 제고

① 고유 자산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

- 역사문화, 섬, 음식, 한류, 공연(음악) 등 인천 관광 킬러 콘텐츠 개발 및 대표 관광상품 육성
- 인천 가치 재창조 및 관광 콘텐츠 개발 거점 성격의 인천 스토리텔링센터 운영
- 지역 고유 누들 자산과 누들테마거리·제분기업 등 관련 누들 인프라를 활용한 누들타운 프로젝트 추진

② 강화 역사·문화 관광명소 육성

- 강화 역사문화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강화역사문화단지 조성 및 역사문화자원 네트워크
- 강화 남단 갯벌 및 생태자원을 연계·활용하는 강화 남단 녹색관광회랑 육성
- 강화 특산물과 농·어업의 6차산업화와 연계한 고부가가치 관광 비즈니스 육성
- 강화읍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사업과 연계한 역사문화관광 육성
- 2018년 강화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과 연계한 강화 킬러관광콘텐츠 개발



③ 예술·공연관광 중점 육성

- 문화예술 창작 활동과 연계한 도시 예술관광 및 섬 예술관광의 체계적 육성
- 인천펜타포트 음악축제 재구성을 통한 통합브랜드 구축 및 4계절 음악축제로 육성, 송도 달빛축제공원 등 공연관광 전용 배뉴(venue) 육성
- 지역성·역사성을 보유한 기존 지역 축제의 선별 및 경쟁력 강화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문화관광축제로 진입 추진

④ 집객공간 조성 및 정비

- 관광단지, 테마파크 등 대규모 집객력이 있는 거점형 관광개발사업 투자 유치 추진
- 개항창조도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월미관광특구 활성화, 송도·영종도 등 향후 관광특구 요건 구비 가능 지역 관광특구 추가 지정
- 기존 관광공간 재생 및 도시상징물 관광자원화, 전통시장·상점가 관광 활성화 지원
- 공원, 해변, 수변공간, 박물관, 미술관, 산, 탐방로 등 시민 여가활동을 촉진하는 시민 여가 대표 공간 선정 및 관리



전략3. 섬·해양 관광의 체계적 육성

- 차별적인 섬 자원의 창의적 활용과 매력도 제고를 통해 미래 경쟁력 확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지역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 추구
- 도시 내 다양한 해양명소 창출을 통해 배후 지역과의 연계 발전을 도모하고 관련 시장 성장세에 대응하는 해양관광·크루즈 관광의 육성

① 주제가 있는 섬 관광 육성

- 예술섬·생태섬·에코아일랜드·휴양리조트 등 주제가 있는 섬 관광개발 추진, 서해5도, 강화군도, 덕적·자월군도, 근해도서 등 권역별 거점 섬 육성 및 주변 도서 네트워크 구축
- 창작활동 연계 융합 프로젝트 활성화, 맞춤형 콘텐츠 개발 등 섬 관광 매력 강화사업 추진
- 숙박·식음시설 개선, 내부 교통·안내체계 개선, 용수·전기 등 섬 관광 기초 인프라 정비
- 여객선 준공영제, 제2연안여객터미널, 연육·연도, 항공, 크루즈 등 섬 접근성의 획기적 개선
- 섬 관광 글로벌 브랜딩 및 마케팅 강화, 섬 여행학교, 요우커 등 섬 관광시장 공격적 창출
- 지역주민 역량 강화 및 젊은 인구 유치, 전통 경제구조와 연계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

② 항만 재개발 및 해양 관광명소 육성

-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과 연계하여 내항 재개발을 통한 해양관광 거점 조성
- 소래포구 등 항·포구 관광 명소화, 아라뱃길 관광 명소화 등 도시지역 해양명소 육성
- 내항·월미관광특구~아라뱃길(정서진)~영종도(씨사이드파크) 일대를 연계하는 연안관광존 육성 및 작약도·세어도 등과 연계한 해상네트워크 구축



③ 해양 레저 및 문화생태 관광 육성

- 마리나를 활용한 해양복합 레저단지 조성 및 마리나 연계 해양레저산업 육성, 소규모 어항 마리나 개발을 통한 해양레저 네트워크 구축
- 인천 바다학교 등 해양레저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해양레저 전문 기업 및 인적 자원 양성
- 해양보호구역·갯벌 등을 대상으로 해양생태관광 육성 및 해양 문화 원형 수집·콘텐츠 개발 등 해양문화관광 육성
- 해수욕장의 정비 및 매력 특화 사업 추진, 선착장 기능을 복합화한 인천 바다역 사업 추진

④ 크루즈 관광 육성

- 인천항 新국제여객터미널 크루즈 모항화 및 인천국제공항 연계 Fly&Cruise 관광 활성화
 - 크루즈 유관 기관 인천 크루즈 진흥협의체 운영 및 관광시장별 협력 마케팅 강화
 - 섬 기항 크루즈, 하버크루즈, 레스토랑크루즈, 파티크루즈 등 연안 테마 크루즈 육성
- * Fly&Cruise : 항공편으로 인천공항에 입국하여 항만 주변 관광·쇼핑 후 출항



전략4. 인천관광 브랜드 및 마케팅 강화

- 빠르게 성장하는 국내외 관광시장에서 매력적인 관광도시 인천의 강한 존재감을 부각하고 표적시장 마케팅 강화를 통한 시장유치력 확대
- 인천의 입지 강점을 활용한 중국 관광객 시장 유치력을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내국인, 일본·동남아 관광시장 등 타 관광시장에 대한 균형잡힌 관광마케팅 활동을 통해 특정 시장 의존도에서 오는 한계 극복 및 관광시장 유치력 유지·확대

① 인천 관광브랜드 개발 및 관광홍보 체계 통합화

- 복합리조트, MICE, 의료 등 융·복합 관광산업 및 인천 특화 매력을 모티브로 한 아이덴티티 발굴 및 글로벌 관광 브랜드 개발
- 시·군·구(관광홈페이지), 인천관광공사(소셜네트워크)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홍보채널 통합 관리·운영 체계 구축
- 시·군·구 및 유관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제작중인 인천관광 오프라인 홍보물의 통합 관리
- 빅데이터 분석,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 활용 등 디지털 마케팅 강화

② 요우커 유치 마케팅 강화

- 중국인 선호 쇼핑, 뷰티, 체험 등을 중심으로 한 유닛 프로그램(결합상품) 개발을 통해 인천 체류기간 점진적 확대
- 휴양·크루즈·섬·드라마 등 인천의 특화 콘텐츠를 활용한 인천 Must Visit 관광상품 개발 및 제주형 중국인 환승관광객 무비자 입국제도 인천항 도입 추진
- 공공기관·민간기업, 체육·실버·청소년·문화예술 단체 교류형 관광 등 대형 단체관광객 유치 강화, 요우커 개별 관광객 맞춤형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 및 SNS 홍보 강화
- 한국관광공사 중국 현지사무소와 연계한 인천관광공사 현지 사무소 운영 등 현지 마케팅 강화



③ 국내외 관광객 유치 강화

- 일본·동남아·구미주 등 국외 세분 시장별 마케팅 강화, 서울 중심으로 체류 중인 개별 관광객의 인천 유입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 및 관광상품 유통경로 구축
- 일본 골든위크(4~5월) 등 시장별 성수기 집중 관광프로모션 및 테마 관광프로그램 확대
- 내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권역별 스토리텔링 강화 및 개별관광객 관광상품 확대
- 온라인 여행사 OTA(Online Travel Agents) 등과의 전략적 제휴 마케팅을 통한 개별관광객상품 개발
- 뉴시니어, 싱글족 등 관광시장 변화와 체험·참여 욕구 증대 등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관광상품 개발 확대 및 종교관광 등 인천만의 콘텐츠 차별화를 활용한 신규 시장 창출

전략5. 관광수용태세 정비 및 관광교류협력 활성화

- 인천 관광 전반에 대한 질적 성장 추구하고 글로벌 수준의 관광수용태세 구축을 통해 관광하기 좋은 인천 환경 구축
- 지역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고 불확실성과 불안정성 증가, 예측 불가의 일상성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 국내외 관광교류 협력을 선도하는 네트워크 거점 도시 기능 수행과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지역 차원의 남북 간 관광교류 협력 활성화

① 관광품질 인증 및 관광환대서비스 개선

- 숙박, 쇼핑, 식음, 뷰티 등 관광객 접점시설의 품질 관리를 위한 인천 관광품질관리 시스템(IQTS, Incheon Quality Tourism Service) 구축
- 인천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시민 가이드 육성 사업 개념의 인천 그리터(Incheon Greeter) 사업 추진
- 인천 관광불편 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인천 관광 이미지 훼손 요소 관리 및 인천 관광 신뢰도 제고

② 관광수용태세 정비

- 중구, 송도, 부평 등 국내·외 관광객의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관광수용태세 중점 정비 지구 제도 도입
- 인천형 관광수용태세 진단모델 개발을 통한 관광안내, 쇼핑시설, 숙박시설, 식음시설, 공공편의시설, 교통시설 등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정비
- 쇼핑 여건이 우수한 지역을 대상으로 쇼핑관광 활동 편의를 집중 개선하는 쇼핑관광 중점 육성 지구 운영



③ 지속가능한 관광관리 및 인천관광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 관광자원(자연생태, 역사문화 자원 등) 관리, 관광객 행동 관리, 지역사회 역량 관리 등 인천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 관광관리 시스템 구축
- 자연재해, 관광객 안전, 질병, 테러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인천관광 위기관리체계 구축

④ 국내외 관광교류 협력 활성화

- 수도권, 섬·해양 등 지역 간 관광정책 네트워크 강화, 수도권 메가 관광권, 아라뱃길 활성화 등 관광 교류협력 중점 어젠다 발굴 추진
- 아시아·태평양 도시관광진흥기구 등 초국경도시 간 다자간 관광정책 네트워크 강화, 중국 자매·우호도시와의 관광교류협력 사업 활성화
-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영종·강화·개성 국제평화관광벨트 및 서해 해양평화공원 육성

